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박동선 같은 네트워크 있어야, 미국 정가 영향력”

별세한 박동선씨 재평가 바람
60년대 학맥 기반 워싱턴 정가 인맥
뇌물 브로커·독재 하수인 오명에도
별세 직전까지 멕시코와 사업 추진

“미국 정계에서 이스라엘·대만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원한다면 박동선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지난 19일 89세로 별세한 고(故) 박동선 파킹턴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의 평가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정 이사장은 1970년대 미 워싱턴과 한국 정가를 떠들썩하게 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연구해 왔다. 정 이사장은 “박 회장은 70년대 미 의회 네트워크가 빈약하던 시절 한국 민간 외교를 사실상 개척한 인물”이라며 “당시 워싱턴 시각에선 로비스트지만 서울 시각에선 국가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구



지난 3월 주한 레바논대사관에서 양투안 아잠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박동선씨(오른쪽). 그는 전통차 애호가로 생선 차(茶)인연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사진 강형원 포토저널리스트]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한-미 외교 관계에 큰 마찰을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주역인 박 회장이 숨을 거두면서 그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당시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한 박동선씨의 코리아 게이트 관련 기사들. [중앙포토]

있다. 해당 사건으로 로비스트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그가 보여준 민간 외교력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처한 현재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회장은 대미 네트워크가 사실상 불모 상태였던 60년대에 한국인으로 미 정계 인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벌인 인물이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47년 월남한 그는 서울에서 고교 졸업 후 55년 미 조지타운대에 입학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재학 중 아시아인 최초 학생회장을 맡았다. 졸업 후 미국에서 미국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벌였다. 66년엔 워싱턴에 학맥을 기반으로 한 사교 클럽 ‘조지타운 클럽’을 만들어 정계 주요 인사들과 인맥을 쌓는다.

일본인 납북 협상과정 비밀리에 역할도 하지만 박 회장은 ‘제2의 고향’로까지 생각했던 미국과 두 번의 약연을 맺는다. 첫 번째는 76년 10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시작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다. WP는 당시

“한국인 박동선이 한국 중앙정보부 지시에 따라 연 50만~100만 달러의 현금을 미 의원과 공직자에게 주는 매수 공작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78년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출석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전현직 의원에게 85만 달러의 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자유로운 신분으로 국제무대에서 비즈니스를 벌이던 박 회장은 2005년 미국 당국에 체포돼 약 3년간 옥살이를 한다. 이라크 정부로부터 최소 200만 달러를 받고 유엔 ‘식량 교환’ 프로그램 채택을 위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다. 두 사건으로 박 회장에겐 ‘독재정권 하수인’ ‘뇌물 브로커’란 오명이 꼬리표처럼 달렸다.

하지만 박 회장과 교류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이승호·이유정 기자
» 3면 ‘박동선’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공포...가자전쟁 이후 최대규모 교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레바논 이 접경지 교전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격화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접경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으나 헤즈볼라가 굴하지 않고 반격하면서 전면전 공포가 감돌고 있다.

AP, AFP,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헤즈볼라는 22일 오전 이스라엘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공습경보가 울렸고 수천 명이 대피소로 물러들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심각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도 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난 몇 시간 동안 115발의 발사체를 북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포는 자국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또 헤즈볼라의 보복에 대비해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지적인 갈등 수준이었던 양측간 충돌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격화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을 공언했다.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해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AFP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젠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LA한인회 관계자들이 1975년 한인회관 개관식 당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21년 한인들이 LA 한인타운에서 아시아 증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전국 한인회들, 1세와 한인 사회 넘어, 2세와 주류 사회로

미주 한인회의 미래

“젊은 세대, 이민자 모두 포용”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한인회들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이민 1세대와 한인 사회 문제에 치중했으나, 요즘에는 더 많은 2세와 3세를 포용하고 주류 사회에서 한인의 권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LA한인회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2세 한인회장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내가 처음일 것”이라며 “내가 한인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LA한인회는 올해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30~40대 젊은 한인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로 거론되는 스티브 강과 로버트 안은 모두 LA 커미셔너를 지냈고 한인 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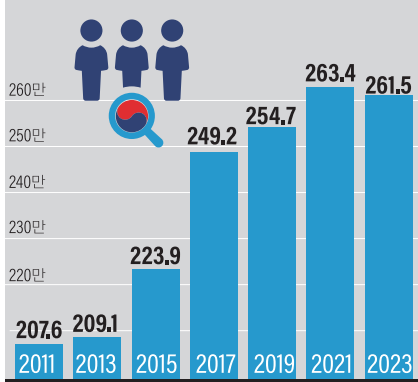
LA한인회는 잦은 회장 변경에 따른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회장직을 봉사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CEO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1주년을 맞이한 미주 한인 이민 사회는 2세대, 3세대가 중심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한인회의 세대교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은 것을 기념해 2005년 이날을 ‘미주 한인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백악관은 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

미국 내 재외동포 현황



자료: 재외동포청

해 성명에서, “오늘날 한인들은 기업가, 변호사,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미국을 풍요롭게 한다”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인 이들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을 계속해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성명에서 알 수 있듯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은 121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한인 사회에서만 주로 활동하던 과거 이민 1세대의 시대가 저물고 영어가 더 친숙한 2세대, 3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큰 이유 중 하나다.

세대교체 변화는 역설적으로 한국어 위주의 한인 사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회의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인회의 역할과 미래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거 사랑방에서부터 번역 회사, 동사무소 업무 대리 업체에서부터 법률 자문까지 한인 이민자들의 일상생활 고충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써온 한인회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에만 약 150개에서 180개의 한인회가 존재한다. 이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100여 곳 정도라고 한다.

재외동포청이 관리하는 ‘코리아넷’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한인회의 수는 112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및 삭제를 할 수 있고 새로 생겨거나 해체됐어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내 한인회 관계자들은 전체 한인회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활동을 늘리는 곳들이 많다고 말한

다. 많은 한인회들이 내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인회의 미래는 밝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젊은 사람들은 한인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인회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서로 싸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꿔 젊은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단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역시 한인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비영리단체인 한인회가 회장 선출에 따라 이사회가 바뀌는 것을 미국에서 자란 2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젊은 세대에 설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스티브 리 워싱턴한인회장은 1세대 이민자수의 감소로 한인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그는 “1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이민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기회만 있다면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민 2세와 3세가 늘어나듯 새롭게 이민을 오는 한국 ‘이민 1세대’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 회장의 전망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다. 2세대 한인으로 포함되는 미국 내 재외동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동포 수는 2011년 207만 5000여 명에서 2017년 249만 200여 명으로, 2023년에는 26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약 10년 사이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주 한인회장들은 ‘함께 할 50년’ 미래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한인회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보건, 법률, 봉사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단체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는 오히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한인회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한인들 전체를 대변하는 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특화된 단체와 서로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한인회는 한인 전체의 권익 옹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민 2세대들은 미국 생활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오히려 3세대들은 할아버지 세대가 활동하던 한인 사회가 어떤지 궁금해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지역 내 소수계끼리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똘똘 뭉쳐야 했던 끈끈함은 없어졌지만 한인 사회라는 네트워크가 끊어질 일은 없고 이런 역할을 한인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티브 리 워싱턴한인회장은 “한국 음식과 음악 등 문화는 미국에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며 “차별과 감정이 가장 달한 미국으로 이민은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이민 1세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이민자들은 네트워크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한인회의 역할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도계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곳이 미국”이라며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될지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남 기자

“ 세대교체 통한 변화 권익단체로 성장 CEO 체제 도입 ”

워싱턴 날씨 (°F)

24일(화)	74-63	27일(금)	79-65
25일(수)	71-64	28일(토)	78-62
26일(목)	74-66	29일(일)	75-61

9월 23일(월) 75~6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저렴 가격/호실/환경/리모? **SOLD**

AK & Associates, P.A.
공인회계사 김경태
34년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당신의 자산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회계업무, 세무감사, 비즈니스 설립, 노후대책상담, 세무보고, CPA Advisory Service

워싱턴 중앙일보 창간 23rd 기념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지금껏 한인 동포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중앙일보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ember of AICPA, Member of CBMC
Tel. 410-719-1000
Fax. 410-719-9198 / www.ak2cpa.com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기준 금리 4년 반 만에 인하.. 실생활 영향은?

SPECIAL STORY

주택모기지·카드·학자금 등 이자율 어느정도 영향 받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해 한인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예고했다.

연준은 지난 17-18일 양일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회의록 작성에 앞서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인하를 결정했

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5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검증없이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준금리는 모든 시중은행에 대한 저금대 이자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조치가 뒤따르게 되는데,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마진을 뜻하는 예대마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기 때문에 금리인하 체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주택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연방재무부 채권 금리와 연동하기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로 주택모기지 금리로 옮겨오는 시차가 대출금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주택 모기지 금리는 이미 연방재무부 채권 금리 하락 기조 속에 최근 6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주택모기지 금리보다 관련성이 더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금리는 연방정부의 직접 융자 금리는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지만, 시중은행 융자의 경우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40년래 최악의 고물가시대와 최근 20년래 최고의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한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2.5% 안팎으로 안정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연준은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제시해 아직은 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준 관계자를 올해 남은 두번의 FOMC에서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4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조치로 팬데믹 이전의 사실상의 제로 기준금리 시대에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유재 기자

고물가에 밀려니얼... 공유·구독형 서비스 이탈

김수지씨는 팬데믹 이전 에어비앤비의 충성 고객이었다. 체크인아웃에서 청소비용과 기타 수수료 추가로 숙박비용이 급증하자 다음 여행 숙박은 호텔로 바꿨다.

가격 대비 우수한 편의성으로 벤처기업들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던 밀레니얼 세대가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업체들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전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다.

소비 업계 전문가들은 “소위 신규 기업들이 제공하던 밀레니얼 라이프 스타일 보조금(millennial lifestyle subsidy)이 사라지면서 밀레니얼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 대신 호텔 또는 우버 대신 공항 주차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 돈 절약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밀레니얼 라이프스타일 보조금은 2000년대와 2010년대 밀레니얼세대의 충성도를 얻으려는 벤처기업들이 구독을 포함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차량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이용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밀레니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LA국제공항 주차장. [LA국제공항 제공]

서비스 업체 우버, 밀키트 업체 블루에이프런, 오피스 공유 업체 위워크 등이다.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의 보조금을 받은 벤처기업들은 저렴한 혁신적인 주문형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고객 유치와 수익을 기대했다.

벤처기업들은 집 앞 배달, 부티크 피트니스 수업 무제한 참여, 개인차량 서비스 등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경험을 선사했다.

막 성인이 된 밀레니얼 세대에게 월 9.95달러 구독에 무제한 영화 티켓을

제공하는 무비패스, 월 99달러의 클래스 패스, 메이플 배달 서비스 등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40년만에 정점을 찍은 물가상승과 높은 이자율로 이들 서비스 비용도 꾸준히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펠로톤은 피트니스 멤버십 요금을 39달러에서 44달러로 인상했다. 2019~2022년 사이 우버 평균 서비스 비용은 45% 상승했고 인스타그램 서비스 수수료도 61%나 올랐다. 에어비앤비 평균 일일 숙박료는 2019~2022년 사이 36%나 상승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서비스를 구독하던 소비자들은 가격 급상승에 대한 찾기에 나섰다.

밀키트 구독과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은 물론 2일 에어비앤비 숙박에 500달러를 내는 대신 호텔 할인 숙박을 선택하고 있다.

우버 대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피트니스 수업 구독 대신 피트니스 유튜브로 집에서 운동한다. 부유한 쇼핑객도 달러제너럴과 알디 같은 할인 브랜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은영 기자

>1면 '박동선'에서 이어집니다

코리아 게이트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의회 담당 참사관이었던 김석규 전 주일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청문회장에서 한-미 측 의원이 박씨에게 ‘당신은 이전에 쌀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볼이자 박씨가 ‘당신은 이전에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 있느냐’고 되받아쳤다”며 “미국의 군사 원조 한 푼이 아쉽던 그 시절 박씨의 모습을 보며 대단한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활동 범위가 미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박 회장과 교류를 해 온 김중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박 회장의 네트워크를 높게 평가한 일본-대만 정부도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일본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은 2017년 한국 정치인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관저 면담을 성사시킨 배후에 박 회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슈칸분순은 박 회장을 70년대 한-미 관계를 흔든 코리아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와 북한의 협상 과정에서도 박씨가 비밀리에 활동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2014년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일명 '코리아 게이트'로 한-미 정계를 떠들썩하게 한 박동선씨가 내외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미국 원조를 못 받으면 국가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라를 위해 내가 벌인 자발적 활동”이라며 “지금도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엔 우수한 관리가 많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은밀한 협상을 벌일 때 민간 차원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찬(전 국정원장) 광복회장은 “국정원의 안일함으로 벌어진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 등을 보면 아직도 박 회장과 코리아 게이트 사건에서 한국이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호·이유정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 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초대합니다”

워싱턴지역 여교역자회 창립예배 & 세미나

Founding Worship Service & Seminar of the Clergywomen Association in Washington DC & Virginia

강사: 임은미 (유니스) 선교사 목사
제목: “각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1-5

일시 10월 6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워싱턴 제일 순복음 교회
6401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

세미나
대상 여성 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일시 2024년 10월 7일 (월) 10am - 12pm
장소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4300 Evergreen Ln., Annandale, VA 22003

후원
단체: 워싱턴지역 교회협의회, 워싱턴지역 교역자회,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교회: 워싱턴비전교회(김찬영 목사), 생활선교회(이경희 목사), 린즈버그한인교회(이택래 목사), 워싱턴리빙스톤교회(이향숙 목사), 헤세드유나이티드선교회(박지나 목사), 버지니아제일장로교회 김봉묘 목사

워싱턴지역 여교역자회 | 회장 박희숙 목사, 부회장 이향숙 목사, 총무 김봉묘 목사, 서기 이경희 목사, 회계 박지나 목사, 중보기도 리더 이영희 목사

한인 2천만불 잭팟 한인 리커에서 판매

장효석씨 2월3일 수퍼로토 당첨
업주 변해양씨도 10만불 보너스
18년 운영 - 당첨자는 단골손님

한인이 무려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잭팟 상금의 주인공이 됐다. 당첨 복권을 판매한 리커스토어 업주도 한인으로 밝혀졌다.

19일 거주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실시된 '수퍼로토 플러스' 추첨에서 당첨번호 6자리 숫자를 모두 맞힌 1등 티켓의 소유주는 한인 장효석(Hyo Suk Jang)씨로 확인됐다. 복권국은 장씨가 사우스 LA 지역 BMO 스타디움 인근 'Y & Y'

마켓에서 티켓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 마켓의 업주는 한인 변해양(73) 씨다.

당첨 번호는 2, 12, 18, 20, 44, 그리고 메가 번호 4였다. 6개 번호에 모두 당첨된 장씨 외에도 5개의 번호를 맞춘 다른 세 명도 각각 1만2000달러를 받게 됐다.

당첨자가 나온 마켓의 업주 변해양 씨는 19일 본지에 "당첨자가 인사하러 와서 당첨자를 알고 있다"며 "당첨자가 나와 기분이 좋다. 복권 판매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8년간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당첨자는 우리

가게에 다닌 단골이다. 의류업체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권국에 따르면 이날 장씨의 당첨 확률은 4141만6353분의 1이다. 흔히 평생 한번 벼락을 맞을 확률을 1만5300분의 1로 추산한다. 장씨의 당첨 가능성은 살면서 벼락을 2번가량 맞을 확률인 셈이다.

장씨가 당첨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30년간 매해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방, 주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44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윤재·김경준 기자

오타니 MLB 새역사 첫 50홈런-50도루

12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MLB) 역사에 새 장이 열렸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이전까지 누구도 밟지 못한 50홈런-50도루 고지에 올랐다.

오타니는 1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49~51호 홈런을 잇달아 터트리며 시즌 50호·51호 도루까지 해내면서 6타수 6안타(3홈런) 10타점 4득점 2도루로 필필 날았다. 전날까지 48홈런-49도루를 쌓아 올린 그는 이날 대기록까지 남아있던 홈런 2개와 도루 1개를 단숨에 초과 달성하면서 전인미답의 50홈런-50도루를 완성했다.

이날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1회 첫 타석부터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트리며 배트를 예열했다. 이어 다음 타자 프레디 프리먼의 볼넷으로 이어진 무사 1·2루에서 더블 스틸에 성공해 시즌 50도루 고지를 먼저 밟았다.

오타니는 멈추지 않았다. 2회 다시 2루를 훔쳐 시즌 도루 51개를 기록하게 됐다. 오타니는 6회 1사 2루에서 마이애미 볼넷 투수 호르헤 소리아



19일 LA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7회 연타석 홈런을 때려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로이터]

노의 2구째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시즌 49호 2점포를 쏘아 올렸다.

이어 오타니는 7회 2사 3루에서 좌월 연타석 홈런을 폭발했다. 오타니는 9회 또 한 번 타석에 들어서 홈런을 하나 더 쳤다.

2사 1·2루에서 마이애미의 다섯 번째 투수 비달 브루한을 상대로 시즌 51호 3점 홈런을 작렬했다. 3연타석 홈런으로 10타점 경기를 완성했고, 50-50을 넘어 51-51을 기록했다. 잊지 못할 하루를 완성하는 최고의 마침표에 들어서 홈런을 하나 더 쳤다.

델타 항공, 또 한인 인종차별

한국계 승객에 "왜 중국어 못해"
좌석 변경 요구에 기내서 내뱉어

대형 항공사인 델타의 직원이 유명 기독교 영화 감독인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공사 직원은 한국계 남성에게 아시아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어를 왜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발생했다. 항공사 소식 전문 매체 'PYOK'에 따르면, 휴스턴행 델타 항공기(DL 1239)에 아내 수잔과 함께 탑승하려던 티모시 체이(Timothy Chey) 감독이 인종차별적 비방과 함께 기내에서 퇴출 조치를 받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소송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차별 ▷정신적 고통 유발 ▷계약 위반 ▷중대 과실 등을 주장했다.

체이 씨 부부는 탑승 전 한 게이트 직원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직원 대신 중국어로 통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체이 감독은 직원의 통역 요청에 "한국·일본계 혼혈이라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아시아계인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하며 "어떻게 중국어를 못 하느냐"고



티모시 체이(오른쪽) 감독과 그의 부인 수잔. [수잔 체이 페이스북]

되물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인종적 배경을 밝히자 이 직원은 매우 짜증을 내고 화가 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계속됐다. 일등석에 앉은 체이 씨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들고 온 첼로 때문에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었다. 체이 씨 부부는 좌석을 뒤로 젖힐 경우 첼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델타 항공 측에 대체 좌석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때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했던 직원이 다시 와서 '매우 비이성적이며 분노와 증오에 찬 어조'로 비난을 가했다. 다른 승무원이 개입해 체이 씨 부부에게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문제의 직원이 다시 와서 탑승 금지 통보를 하며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서둘러 짐을 챙기던 체이 감독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장수아 기자

소장에 따르면, 델타 항공 측은 체이 씨 부부에게 사건 당일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영화 관련 행사 참석도 취소되었고, 이후 여러 행사도 기피하게 되어 박스오피스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이 일로 지난 5개월 동안 허리 부상이 더 악화됐고 이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두려워졌다"며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행위는 터무니없고 악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델타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티모시 체이 감독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영화를 감독 및 제작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인기 스포츠 드라마 '슬래머 자마'(2017), 영화 '다윗과 골리앗'(2015), '더 아일랜드'(2019) 등을 흥행시켰으며, 최근에는 '더 파이어링 스쿼드'(2024)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체이 감독은 USC 필름스쿨을 졸업한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편, 델타 항공은 지난 2017년에 오버 부킹을 이유로 2살짜리 유아를 비롯한 한인 일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한인 말기 암 환자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가 수하물이 파손되면서 중요한 의료 기록이 분실됐으나 항공사 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장수아 기자

"여성·소수계·이민자 대변" 조지아 하원 99지역구 미셸 강 민주당 후보

주민 6만 명이 사는 스와니-돌루스·슈가힐을 포함하는 조지아 주 하원 99지역구는 민주-공화 양당의 '작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로펌 변호사 출신 백인 남성으로 공화당 소속 현직 의원인 맷 리브스와 한인 이민 1세대 여성 미셸 강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총선에서 맞붙는다. 삶의 이력만으로도 각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후보들이다.

미셸 강 후보는 20일 본사를 방문, "올해 주 의회 선거에서 180개 선거구 중 공화당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선거구 중 하나가 99지역구"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지아 주 하원에는 2명의 한인 의원이 있다. 그럼에도 강 후보가 당선되면 누구보다 '한국적' 의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2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조지아로 이민온 그는 "셋째 딸을 프리킨더가튼(Pre-K)에



미셸 강 민주당 후보

보내고 41세에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도전했다"고 한다. 43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애틀랜타 한인회, 상공회의소,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민주평통 등 주요 한인단체 4곳에 모두 몸담았다.

그의 공약은 민주당 노선과 같다. 청소년 교내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안전법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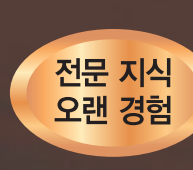
했다. 또 중산층 가정을 위해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한 달 평균 3000달러에 이르는 데이케어(보육원)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고 귀티 카운티 내 대중교통망을 확대하는 지역 특화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강 후보는 최근 하루 평균 6곳의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와 만나고 있다. 평균 일일 운전 거리만 100마일에 달하는 강행군이다. 가가호호 방문 홍보를 시작하면서 누적 8000가구를 방문했다. 그는 "아시아의 경우 퍼블릭 스피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인 유권자에 당부하는 말로 그는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신청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장재원 기자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실업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한국, 1980~90년대 20만명 불법 아기수출”

AP, 입양사기 실태 재조명 고아 등 거짓 이유로 권유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 약 20만명이 대부분 조작된 입양 기록에 의해 부모와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입양 국가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과 공조해 허위 기록을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19일 AP통신이 PBS방송 시사프로그램 ‘프론트라인’과 공동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호주·유럽 등 6개국 정부는 출생기록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1980~1990년대 약 20만명의 아동 입양을 허용했다. 보도에는 ‘아이들은 길에서 납치됐다’고 표현했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기

도 했는데 아이들은 조작된 서류와 함께 해외로 보내졌다. 서류에는 고아, 혹은 미혼모 자녀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양 대행 기관은 병원과 산부인과 등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입양아를 구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1988년 입양 알선기관은 병원에서 데려온 450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는 전체 입양아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트 칼라브레타(한국이름 이한일)씨 역시 당시 병원에서 폐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친부모 측에 적극 입양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여성 디이라카와 베카 웹스터는, 서류상 버려진 아기로 명시됐으나 친부 측은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마지못해 입양하

는데 동의했고 아이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류가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모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로빈조이 박은 친모를 만났지만, DNA 검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조상-친인척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같은 불법 입양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AP가 입수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996년 내부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복지 기준이 아니라, 아동 입양 수익이 좋으면 기관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김은별 기자**

차세대 열전

‘꿈 많은 감각적 그래픽 디자이너’ 윤겸

“혁신적 디자인 솔루션에 자신 넘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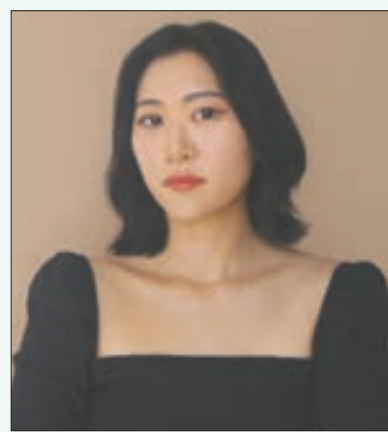
윤겸(Gyum Youn·사진) 씨는 뉴욕에서 떠오르는 차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다.

2019년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를 졸업하고, 2020년 졸업 포트폴리오로 ‘타입 디렉터스 클럽(Type Directors Club)’과 ‘그래피스(Graphis)’에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윤 씨는 뷰티, 패션,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성장을 통해 역동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자신의 전문성과 인맥을 넓혀왔다.

윤 씨는 가장 최근 한국 기업 ‘아모레퍼시픽’에 근무하며, 뉴욕 소호에서 열린 ‘K 팝 앤 뷰티 쇼퍼파이(Shopify) 팝업 이벤트’와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K-뷰티 / 서울 투소칼’ 쇼퍼파이 팝업 이벤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주도했다. 해당 이벤트들은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를 새로운 고객층에게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사 측은 윤겸 디자이너의 리더십으로 “인상적인 매출과 높은 쇼핑 전환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해당 팝업 이벤트는 백만회 이상의 소셜 미디어 인상을 생성하며 브랜드의 가시성을 크게 높여 매출로 연결되기도 주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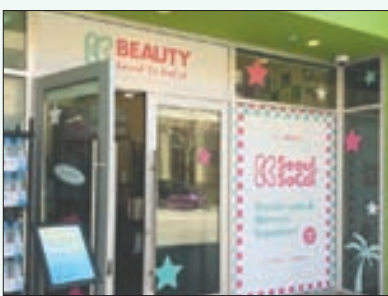
특히 윤겸 디자이너는 이니스프리의 미국 시장 리브랜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세포리아(Sephora)와 스토어 매니지 컨퍼런스(SMC)와 같은 대형 부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3D 자산을 제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며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주목을 끄는 부스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윤겸 디자이너는 이니스프리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단계별 스킨케어 루틴으로 소개하는 교육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담은 세포리아 가상 영상을 제작해 ‘세포리아 가상 비디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씨의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은 리테일 매장, 유료 광고, 디지털 캠페인 전반에 성공적으로 적용돼 브랜드 참여도와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는데, 그녀의 시각적 상품 디스플레이는 세포라 매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윤겸 디자이너는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나의 창의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으로 더욱 헌신할 것”이라는 바람도 전했다. **박세용 기자**



김치·송편에 막걸리까지... 풍성한 백악관 추석상

한인 100여 명 초청 추석 축하 전통 한국요리에 가요도 준비

미주 한인들이 추석을 보내기 위해 ‘특별한 집’에 모였다. 바로 대통령의 집인 백악관이다.

지난 17일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추석 축하 행사의 뒷이야기가 화제다.

이날 백악관 행사장에는 한국에서나 불법한 추석 잔치상이 준비되기도 했다. 동기부여 연설가로 잘 알려진 한인 제리 윈 저스트라이크미디어 대표도 이날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윈 대표는 “백악관에서 김치를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김치와 송편부터 복분자주, 막걸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과 주류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한인들이 구분 없이 어울릴 기회이기도 했다.

백악관에서는 이날 한국 노래도 울려 퍼졌다. 행사에 초대받은 한미연합



17일 한복을 차려입은 한인 참석자들이 백악관 추석 행사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라 박 제공]

회 유니송 대표는 “미 육군 군악대 소속 에스터 강 하사가 한국말로 부른 아리랑과 뉴욕한인합창단이 부른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듣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며 “120년 전 한인들이 처음 이민 와서 이겨낸 역경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실비아 루크 하와이

주 부지사,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성 김 전 주한 미국 대사 등 고위 인사들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화조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애플·크로거·타겟 등 10개 주식 주목하라”

CNBC S&P500 분석·전망

연준 ‘빅컷’ 후 전망 좋은 기업 통화정책 완화 시 호실적 기록

CNBC가 애플(NAS:AAPL), 웨스턴 디지털(NAS:WDC), 램 리서치(NAS:LRCX), 크로거(NYS:KR), 유니티 헬스 그룹(NYS:UNH), 텍스트론(NYS:TXT), 타겟(NYS:TGT), 암젠(NAS:AMGN), 프랭클린 리소시스(NYS:BEN), 익스피디아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NYS:EXPD) 등을 주목하라고 18일

보도했다. 해당 종목들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사이클에 진입한 뒤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CNBC는 1984년 이후에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사이클에 진입했을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주식을 가려 뽑았다고 밝혔다. 주가는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석 달 동안 주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다.

애플은 해당 목록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대형 기술주다. 애플은 올해 들

어 12%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부진한 양상이다. 아이폰 16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애플은 역사적으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 석 달 동안 중간값 기준으로 약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약 9% 올랐다. 기술주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컴퓨터 드라이브 제조업체이자 데이터 저장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이 26.6% 올라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가 22.5%를 기록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형 유통업체인 크로거도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석 달 동안 약 16%나 올랐다. 역시 대형 할인 매장인 타겟도 1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유니티 헬스가 20.3%, 익스피디아 인터네셔널이 15.2%, 프랭클린이 14.9%, 암젠이 14.3%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4.75~5.00%로 50bp 인하했다.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피벗(pivot)을 단행했다.

쇼츠에 AI동영상 제작 기능 추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상을 다루는 쇼츠 서비스에 인공지능(AI)으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유튜브는 18일 뉴욕에서 ‘메이드 온 유튜브’ 행사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의 공식 블로그에도 게시했다. 유튜브는 “올해 안에 구글 답마인드의 가장 뛰어난 동영상 생성 모델인 비오(Veo)를 유튜브 쇼츠에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AI 동영상 생성 기능을 통해 “이전에는 시각화하기 불가능했던 콘셉트에 생명을 불어넣어 훨씬 더 멋진 동영상 배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북튜버(책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책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패션 디자이너가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디자인 콘셉트를 보여주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했다.

유튜브는 답마인드의 AI 모델 비오를 이용해 6초 분량의 동영상 클립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창작물에는 AI 생성 동영상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크리프(라벨)도 붙일 예정이다. 유튜브는 또 내년부터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인 ‘유튜브 스튜디오’의 ‘영감’(Inspiration) 코너에 생성 AI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공해 창작자가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튜브는 또 내년부터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인 ‘유튜브 스튜디오’의 ‘영감’(Inspiration) 코너에 생성 AI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공해 창작자가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튜브 쇼츠에 AI 동영상 생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 캡처]

‘볼티모어 교량 붕괴’ 선주에 1억 달러 소송

법무부 “과실·부주의 사고” 대응·처리 비용 회수 목적

정부가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부딪혀 교량 붕괴 및 물류·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싱가포르 선박의 선주와 운영업체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싱가포르 법인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프라이빗’을 상대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치명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선박과 다리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달리’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정전으로 인한 동력 상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진동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과실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 정도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프로펠러, 방향타, 닻, 선수 추진기 등 선박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수단 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메릴랜드 법무관은 “6명의 비극적 사망사건을 야기하고, 교통 및 국방 인프라를 붕괴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법무부는 수로를 정리하고 볼티모어항을 정상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와 충돌한 컨테이너 선박 위로 교량 상부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교량 붕괴 재난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청구하는 배상금에는 교량 재건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메릴랜드주가 다리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유지하고 운영했으며,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자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박의 선주 및 운영업체는 이번 사고에서 면책 또는 4400만 달러 책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교량 붕괴에 대해 “회사의 과실, 태만,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손실이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에서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8635피트 길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선의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볼티모어항 운영은 11주 만에야 정상화됐다.

보면, 유일하게 ‘빅컷 반대’ 연준이사 2005년 이후 처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이번 금리 결정 회의의 참석자 가운데 미셸 보먼(사진)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연준 이사 가운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한 연준 인사 12명 가운데 11명이 50bp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으나 보먼 이

사만 25bp 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달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 2%에 비해 “불편할 정도”로 높다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밀폐용기 타파웨어 파산보호 신청

6분기 연속 매출 감소 부진 소비자들 친환경 선호 영향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와 일부 자회사 가 지난 17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타파웨어는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사의 자산 가치를 5억~10억 달러로, 부채 규모는 10억~100억 달러로 추산했다.

타파웨어는 지난 수년간 수요 감소와 재정 손실에 시달려왔다. 팬데믹 시기에는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팬데믹 종식후엔 밀폐용기 수요가 다시 줄고 전세계적으로 합성수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파웨어는 2021년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영국 투자업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제너 스트리터 대표는 BBC방

송에 “타파웨어에 좋은 시절이 끝난 지 꽤 됐다”고 지적했다. 스트리터 대표는 “구매자 행동의 변화 때문에 밀폐용기에 인기가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이 음식을 저장할 때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더 의식적인 방안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Healthy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리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트럴/첼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이력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UCKOO



한가위처럼 풍성한 쿠쿠 BIG SALE

기간 8.29.2024 - 9.26.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9월 내 설치

일시불구매시

최대 30% OFF

2건 이상시

\$150 상당
공기청정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H13 True HEPA

렌탈 제품 특별 혜택

전 제품 다운페이 \$100 OFF &
특별 사은품 증정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1건만 해도 사은품 증정
2건 이상 시 더 특별한 사은품이!



*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안마의자 일시불/렌탈 시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3D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트럼프, 2차 암살시도 후 첫야외유세... '위기'의 남부경합주 공략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의 윌밍턴에서 유세를 갖고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남부경합주 공략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유세는 지난 15일 2차 암살 시도 이후 첫 야외유세였다.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1964년 이후 2020년 대선까지 지미 카터(1976년), 버락 오바마(2008년) 전 대통령 등 2번을 제외하고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간주돼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크게 오르면서 경합주로 바뀌었다. 특히 이곳은 온건 공화당원의 표심이 중요한 곳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투

표한 온건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기 싫어하면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불편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남부 국경 불법 이민자 유입 및 일자리 부족 문제, 에너지 및 생활 물가 문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당선되면 아메리칸드림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며 “그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프라는 당황한 것 같았다. 그

녀는 프로였기 때문에 태연한 척했지만, 테이블 밑으로 숨고 싶어 했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는 “그(바이든)가 아직 대통령인가?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어제 내각 회의를 맡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생식권’(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쟁점화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은 4년 전보다 더 가난하고, 덜 건강하고, 덜 안전하며, 식료품과 모든 것에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하고 불행하다”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빠르게 고치겠다”며 여심에 구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장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마크 로빈슨 부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때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서 킹 목사’라고 칭찬하기도 한 로빈슨 부지사는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0여년 전 한 포르노 사이트에 “나는 블랙 나치”라고 언급했으며, 노예제 부활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CNN이 전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로빈슨 부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초박빙 양상인 대선판도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로빈슨 부지사의 이날 유세 불참도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이민자 폭증·주거비 상승...노숙자 수 역대 최고기록 갱신

이민희망자의 급증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올해 미국의 노숙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전역에서 취합되는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65만3천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노숙자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다치다.

WSJ이 뉴욕을 제외한 전국 250여개의 노숙자 보호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 가량 노숙자 수가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12월에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WSJ이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이민희망자의 급증이 지목된다.

국경지대인 텍사스의 주정부가 버스

로 이민희망자들을 대도시로 이송한 이후 해당 지역의 노숙자 수가 급증했다.

이민희망자들이 정착지로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노숙자 수가 11%나 늘었다.

매사추세츠는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난민 보호법이 존재하는 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밀려오는 이민 희망자들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면서 올해에만 10억 달러(약 1조3천36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비용 폭등도 노숙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데다가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도 퇴거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 같은 보호조치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약자가 거리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펜타닐 등 마약 중독자의 증가도 노숙자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5살 손녀·7살 손자...트럼프 유세장 ‘신스틸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손주들로 부터 응원을 받았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녀 캐롤라이나(5·좌측사진)와 손자 루크(7·우측사진)가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과 며느리 라라의 자녀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청중들에게 “우리 가족 중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도 있다. 에릭이나 라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캐롤라이나를 소개했다.

이어 단상으로 올라오는 캐롤라이나

를 번쩍 들어 안았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선거 캠페인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MAGA-마가)를 크게 외쳤다.

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롤라이나의 오빠인 루크도 단상으로 불렀다.

루크 역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연설대에 섰고, “할아버지에게 투표하세요”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루크에게 ‘마가’라고 말하라고 속삭였지만, 손자가 다른 말을 했다며 “사실 그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 열린 야외유세였다. 위기 후 첫 공략지로 경합주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를 택하며 기세를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라라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자랐으며 ‘지역’을 부각했다.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와 이름이 겹치는 손녀 캐롤라이나 등 가족을 유세에서 소개한 것도 이 지역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밀착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는 카말라 해리스를 물리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왜 자주 나나 싶었더니, 소방관이 5차례 방화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고의로 산불을 낸 소방관이 붙잡혔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최근 약 한 달간 5차례 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소방 장비 엔지니어인 로버트 에르난데스(38세)를 체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15일부터 14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북부 소노마 카

운티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노마 카운티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나파밸리 인근 지역이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근무가 아닌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르난데스가 저지른 불은 다행히 각각 1에이커(약 4천㎡) 이상 확산하지 않고 진압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과 화재 진압팀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타일러 소방서장은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1만2천명에 달하는 동료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더럽히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매년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방화 혐의로 붙잡힌다”고 전했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민석 “DJ라면 김정은에 동조 안해” 임종석 2국가론 저격

(친명)

여·야·전문가, 2국가론 잇단 비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이 여론은 물론, 야권과 친이재명 지도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며 “평화적 장기 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특 단결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글은 민주당 지도부 중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이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전대협 3기 의장으로 1989년 임수경씨의 남북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제도권에

정치권·전문가 반발 부르는 임종석 ‘2국가론’

DJ였다면 김정은 설득했지 동조 않았을 것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탈북민과 이산가족에 재뿌렸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 문제는 세대를 잇는 특수 마라톤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김대중 정부)



핵무장 북한에 평화론 꺼낸 건 안보 포기 의미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



임종석의 남북 2국가론

서도 통일 문제를 중시해 왔다. 그런 임 전 실장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된 헌법 3조 개정까지 언급하며 2국가론을 꺼내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얘기가 옳다. 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며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기동하에서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지난해 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닿는다고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김정은

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팍한 명분 쌓기”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통일 포기는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고향에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며

“북한이 반(反)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임 전 실장은 헌법을 흔들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노력을 폄훼한 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이 내놓은 2국가론과 관련한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 시점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 문제는 세대를 잇는 특수한 마라톤”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서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핵무장으로 독자의 길을 가겠다는 북한에 대해 평화론을 꺼내 든 건 폄박한 단 얘기”라며 “진보 진영은 햇볕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정영고 기자

“의원 특권 내려놔라” 마지막까지 외쳤다

‘의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사진)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올해 초만 해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앞장서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고인을 뒤흔친 것은 말기 담낭암이었다. 장 원장은 두 달 전인 7월 15일 “담낭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당혹스럽긴 하지만 할 만큼 했고, 이를 만큼 이뤘으니 미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변에 투병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다.

장 원장은 격동하던 1960~80년대 학생·노동 운동의 한복판에 섰던 운동권의 대부였다. 다만 평생을 재야에 몸담은 고인의 삶은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60년 지기인 장 원장에게는 ‘현대판 애국지사(志士)’의 품모가 흠뻑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주류에 속할 수 있었지만,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대에 입학했지만, 1995년 졸업하기까지 꼬박 29년이 걸렸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맡아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

에 연루돼 수배·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당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인권운동가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렸다. 1980년 대에도 장 원장은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창립에 앞장섰고, 85년 청계천 피복노조 투쟁 사건, 86년 인천 5·3 사태 등을 주도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감옥에서만 9년을 보내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한 장 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약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에 기여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였다. 장 원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장 원장은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를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는 행태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는 전태일 열사다. 장 원장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하자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를 찾아가 시신을 인수해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후에는 전태일 관련 자료를 수집



한 뒤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았다.

1990년대 들어 고인은 제도권 정치 문턱을 꾸준히 두드렸다. 1990년 이재오 이사장,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을 창당했고, 이후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등을 창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일곱 차례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남 김해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이 즈음 고인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파탄의 장본인”이라고 작심한듯 비판하자 진보 진영은 “변절자”라고 반격했다. 장 원장은 “진짜 변절은 진보의 탈을 쓰고도 수구 세력으로 변모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는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규모를 줄이는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 왔다.

사채업자에 돈 빌린 군 간부들, 담보로 ‘암구호’ 넘겼다

(아군·적군 식별위해 정한 말)

국내 한 군부대 소속 간부 일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기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 정보 수사기관과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2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수의 사채업자를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검찰은 뒷선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청도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 간부 몇몇은 민간인인 사채업자 여럿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올해 봄에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채업자와 신뢰를 쌓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일

반적인 담보 대신 암구호를 공유했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로운 암구호가 만들어진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간부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군인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사채업자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인정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과 검경은 그간 가담자 신병을 확보,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들이 암구호를 이용해 군부대를 무단으로 출입했을 가능성과 범죄 연관성 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표 선생은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 원장에게 국민훈

장 모란장을 추서해 유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6일이다. 장지는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주하(74)씨와 딸 하원, 보원씨가 있다.

손국희 기자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세종 송보감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증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인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p>9월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9/25~10/1 \$2,890 +항공</p>	<p>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 +항공</p>	<p>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27~4/5/25 \$3,990 +항공</p>	<p>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박 10박11일 \$2990+항공</p> <p>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p> <p>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p>
<p>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8~10/18 \$3,190 +항공</p>	<p>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2/17~2/26/25 \$3,590 +항공</p>	<p>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했던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4/14~4/20/25 (봄방학 특선) \$2,990 +항공</p>	<p>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박 10박11일 \$3190+항공</p> <p>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박</p> <p>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p> <p>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박 10박11일 \$2990+항공</p> <p>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p> <p>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박 10박11일 \$2990+항공</p> <p>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p> <p>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p>
<p>10월 정통 서유럽 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 10박11일 10/9~10/19 대박 \$3,490 +항공</p>	<p>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11,500 +항공</p>	<p>4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9일 4/30~5/8/25 \$3,390 +항공</p>	<p>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p> <p>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p> <p>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p> <p>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p> <p>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p>
<p>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6박7일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2,390 +항공</p>	<p>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 +항공</p>	<p>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0~5/13/25 \$4,590 +항공</p>	<p>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p> <p>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p> <p>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p> <p>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p>
<p>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 +항공</p>	<p>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7박8일 3/17~3/24/25 \$3,190 +항공</p>	<p>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890 +항공</p>	<p>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p> <p>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p> <p>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p> <p>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p> <p>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p>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3-2025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 +항공

특점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안호텔/여수 소노림/거제 소노림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안호텔/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6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대안 \$499+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4일 대안 \$690+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립 \$555/여 \$595 미국국립 \$720/여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병원/서울/대전/경기/강원

성극 대니얼
 +아미쉬마켓 당일 **\$199**
 10/1, 11/14,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매주 **월요일**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9/30, 10/07, 10/14, 10/28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요일 8박 9일 \$150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몬트리올/퀘벡
 10/7, 10/14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환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뉴욕 동부 명호 해안 북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드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요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요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요일**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요일**

엘로스톤 3박4일 \$930+항공 **일요일**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윤·한 갈등' 분수령 될 내일 만찬... 김 여사 리스크 풀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24일 만찬 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한 회동은 7·23 전당대회 직후인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있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 국정운영 지지율(20%, 한국갤럽 9월 10~12일 전화면접조사)을 보인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 대표 역시 개인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다. 여권의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24일 만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건의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거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도 요청했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은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 만큼 밥만 먹고 사진만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만찬에서 의·정 갈등 현안 외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여권 위기 상황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로 김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는 이

가 당내에 적지 않다.

최근 명품백 수수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김 여사가 활동 폭을 넓히자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홍준표 대구시장)며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 처신은) 부적절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지 못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만찬 형식 때문이다. 24일 만찬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수석비서관급 이상)를 포함해 스무 명 넘는 인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 대표 측은 "이 때문에 독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반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 간 상견례 성격"이라며 "현안을 다루겠지만,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2일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

의 경위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 요청 같은) 민감한 이야기가 왜 언론에 나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저희 지도부 중 어떤 분이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와중인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당장 친윤계에선 "지금처럼 자기 유리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언론 플레이(한 대표 측이) 계속하면 그 누구와도 신뢰를 쌓기 힘들다"(장예찬 전 최고위원)며 부글부글 끓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쯤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한 서울공항엔 한 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는 대화 없이 악수만 했고, 이상민 장관과는 50초가량 얘기를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며 마중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권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나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기정·박태인 기자

"영화 무도실무관, 젊은 세대 보길" 윤 대통령, 참모들에게 적극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에 시간을 쪼개 본 뒤 참모들에게 추천한 영화가 있다. 배우 김우민·김성균 공동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사진)이다.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젊은 세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감독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은 각각 381명과 165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무도실무관'은 태권도와 유도, 검도 포함 9단인 이정도(김우민 역)가 법무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 역)의 제안으로 임시 무도실무관을 맡아 활약한다는 내용의 액션 영화다. 영화는 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연쇄아동성폭행범 강기중(이현걸 역)이 출소하고, 이정도와 김선민이 자진해 강기중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며 절정으로 치달는다. 영화 막바지에는 대통령이 무도실무관을 격려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무기계약 공무원으로 유단자 30명을 선발했던 것이 시작이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2인 1조로 출동해 규정을 어긴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시 및 제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4182명에 달하고, 전자

윤 대통령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는지 영화에서 여실히 보여준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당부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 대한 예산 증가와 처우 개선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직위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도 2022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세대가 다른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청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태인 기자

4대그룹 총수 동행... 한·체코, 전기차·시도 손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사절단 규모는 여러 국가를 순차적으로 찾는 순방 때 못지않았다. 공군 1호기에 탄 장관급 인사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7명에 달했다. 대통령실에선 장관급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동행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도 올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오른쪽부터)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가 한수원을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자신의 친서를 품은 안덕근 장관을 체코에 비밀특사로 보내 전방위적 산업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2박4일간 진행된 방문 일정의 핵심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이었다. 20일엔 체코 수도인 프라하에서 90km 떨어진 산업기술도시 플젠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두산스코다파워는 1869년 설립된 체코 터빈 제조 회사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2009년 8000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지빌리티·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면 두산스코다파워로부터 증기 터빈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될 제품과 같은 모델의 터빈 블레이드(증기 가스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부품)에 기념 서명을 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의 주제도 에너지였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은 "체코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적극 모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협력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동유럽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동유럽은 최근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로보틱스·바이오 등을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커진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원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다. 영국 정책 연구소인 엠베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동유럽 국가의 태양광 발전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최현주·박태인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극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매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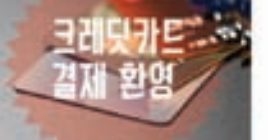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신원구원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22년 슬픈 자영업 인생 오늘 맥주 한병 팔았다

59 창간기획 2024 자영업 리포트

자영업 시리즈 키워드

- 1 현실
- 2 빈곤
- 3 고령화
- 4 굴레
- 5 해법



녹두호프 점주 김례숙씨가 지난 19일 유일한 영업의 흔적이었던 맥주병을 치우고 있다. 2만원의 하루 매상이 처량했지만, 말벗 하나 없이 공(空)치는 날에 비하면 차라리 '운수 좋은 날'이었다. 그렇게 이땅의 자영업은 쇠락하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 녹두호프 김례숙씨 가난도 시골도 지긋지긋해 마흔 넘긴 나이에 무작정 상경 겨우 터 잡았는데 세상은 변해 폐업에 800만원, 그 돈이 어딴나

우리문은 재질보다 무거웠다. 지난 19일 그걸 열고 들어온 유일한 손님은 오랜 단골이었다. 김례숙(69·여)씨는 그에게 맥주 한 병과 마른안주 한 접시를 대접했다. 그 음식의 단가 2만원이 그날 올린 매상의 전부였다. 더럽힌 게 없으니 씻고 닦을 것도 많지 않았다. 오후 11시쯤 맥주병을 치운 김씨가 무겁게 일어섰다. 출입문은 제 주인을 내보내는 것으로 변하지 않았던 노동을 끝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명 녹두거리에 터 잡은 지 27년. 한때 서울대생의 아지트였던 녹두호프는 옛 영화를 잃은 지 오래다. 손님이라고는 하루에 한두 무리가 고작이고, 공(空)치는 날도 드물지 않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땅의 슬픈 자영업자들과 함께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김씨는 농사꾼이었다. 195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또래 여성들처럼 배움이 길지 못했다. 고교를 작파한 뒤 섬(진도)으로 시집가 농부의 아내가 됐다. 논매고 밭 일구며 아들딸을 낳아 기르던 그는 가난과 농촌이 지긋지긋했다.

“에라! 남의 집 일을 할지언정 서울 가서 돈이나 벌자. 돈을 벌어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밀려든 지방민의 행렬에 그도 동참했다. 동류에 비해 늦은 상경이었다. 마흔을 넘긴 1996년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고진 체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남편과 고교생이던 딸은 고향에 남겨둔 채였다. 시댁 친척 몇몇이 살고 있던 관악구 삼성동에 터를 잡은 그는 이듬해 녹두호프와 인연을 맺었다. 녹두거리도, 녹두호프도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그는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른바 ‘운동권 호프’로 입지를 굳힌 가게라 선배가 후배를 데려오고 그 후배가 또 다시

‘운동권 호프’서 일하다 2000만원 주고 가게 인수 3월이면 우르르 몰려오던 새내기, 4년째 구경 못해 수십만원 겨우 남는데 25년 경비하던 남편도 잘려 생활 만족도 100점 만점에 30점... 왜? 힘드니까

후배를 데려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심야영업 제한 규제의 수혜도 톡톡히 입었다. 녹두거리는 자정 이후에도 은밀

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사장이 가게 외부에서 내부의 직원과 무전기로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뒤 셔터를 열고 금지된 손님들을 들여보

냈다.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서 5년간 일한 김씨는 그 거리와 가게의 전성기를 톡톡히 지켜봤다. 2002년 주인이 장사를 접으려 하자 2000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째짜게 가게를 인수한 이유다. 그가 인수한 뒤에도 한동안 녹두호프는 위상을 유지했고, 손님은 계속 밀려왔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심야영업 제한이 풀리고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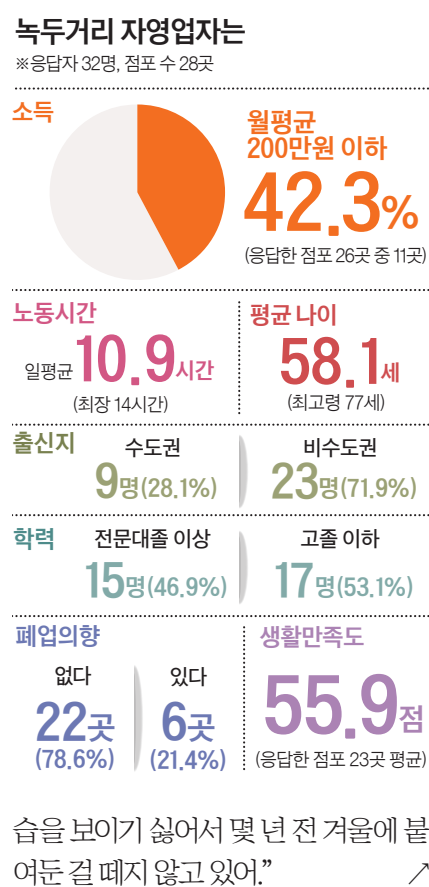
59년 전 열두살 때 나홀로 상경... 지금, 그때처럼 막막하다

관악의 산정수(山頂水)가 첫 굵이를 돌아 직선으로 뻗어 나간 곳에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명 녹두거리가 있다. 민속주점 '녹두집'에서 유래한 이 거리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기자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두 달여간 거의 매일 발품을 팔았다. 고시생과 서울대생을 잃고 서민 상권으로 약전고투하고 있는 이 지역 상인들을 표본 삼아 자영업의 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의심과 짜증, 문전박대의 시간을 꽤 오래 견뎌낸 기자들에게 28개 점포의 자영업자 32명이 차려차례 문과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는 자영업의 역사와 실태에 대한 소고(小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현대사였다. 뼈 빠지게 일만 해온 그들은 사회구조 변화에 휩쓸리면서 아무 잘못도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병천가마술순대교 대학점 권영웅(71)씨는 아직도 1965년의 명동 거리가 눈에 선하다. 살기 위해 서울로 몰려온 지방민 중에서도 당시 겨우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는 도드라졌다. 경북 청송 고향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일찍 남편을 잃은 모친은 5남매를 먹여 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고생했지만 권씨는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상경 선배인 친구의 연락은 복음이었다. “서울 식당에서 일하면 배부르게 먹여주고 채워줘.” 그는 뒷산 나뭇가지를 잘라 판 돈 600원을 움켜쥐고 혈혈단신 서울로 향했다. 사실상 미아이자 고아였던 12세 소년은 ‘명동 달리 골목’의 한 분식집에서 가난한 팔과 다리로 노동을 시작했다. 급여는 없었다. 식당 밥을 얻어먹고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자면서 열심히 일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1년 뒤 다른 식당에

스카우트돼 월급(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현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덕성여대 학생식당 등 무수히 많은 식당을 오가며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됐다. 85년 녹두거리의 한 분식집에서 일할 때 가게 주인이자 건물주가 제안했다. “권리금은 받지 않을 테니 월세만 내고 운영해 볼래?” 그의 첫 가게 만나본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어지는 권씨의 후반생(後半生)은 곧 한국 자영업의 역사다. 그는 8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학동 대관령식당, 숭실대 앞 분식집, 봉천동 장군숯불갈비를 잇따라 여단었다. 금천구 해물찜 가게는 생의 결실이었다. 50평이 넘는 대형 매장에 직원도 4~5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 고객 공급원이던 인근 공단의 폐업. 허탈하게 녹두거리로 돌아온 그는 의정부 부대찌개집을 거

쳐 순댓국집을 경영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칠순을 넘겼지만, 아직도 노동 없는 생존은 불가능하다. 그는 부인과 단둘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일해 겨우 생활비 정도를 벌고 있다. 두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손님이 많을 때는 매뉴판에 품질 스티커를 붙여 주문을 사전 차단하는 ‘꼼수’를 써야 버틸 수 있다. 일이 고되다고 사람을 사는 순간 적자 인생으로 전락한다. 권씨는 여생이 아득하다. “할 줄 아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3년? 5년?” 그는 59년 전 명동거리의 어린아이처럼 막막해 보였다. 호부침개의 전면 유리창에는 여름인데도 ‘뽁뽁이’라 불리는 단열 시트가 붙어 있다. 이유를 묻자 점주 백성기(62)씨가 맥없이 웃었다. “손님 없이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의

703-980-9890

호프집 고된 노동이 남긴 건 특하면 부러지는 늙은 몸뚱이



거의 없다. 전세로 거주 중인 단독주택, 그리고 가끔 찾아와 추억과 용돈을 보태주는 옛 단골들이 전부다. 고용보험은 고사하고 제 몫으로 부어둔 국민연금도 없다.

뒤늦게 상경해 25년간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살림을 지탱하던 남편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자리를 잃었다. 이제 가게의 고정수입은 월 45만원인 남편의 국민연금과 두 사람 몫의 기초연금 25만원, 운수 좋은 달에만 챙길 수 있는 수십만원의 가게 운영 수익이 전부다.

그가 폐업도 하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폐업은 공짜가 아니다. “건물주에게 폐업 얘기를 꺼냈더니 가게를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더군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한 800만원은 나갈 거래. 그돈이 어디 있어?”

그가 평가한 자신의 생활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0점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힘드니까...”

힘겹게 가게 문을 잠근 뒤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김씨의 뒷모습이 처연했다. 노동과 노쇠로 지난해에만 두 번이나 골절된 그 연약하고 늙은 등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유난히 어두웠던 골목길, 그 짐 받아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특별취재팀**

인근 이곳저곳이 개발되면서 녹두거리 독점 체제는 종막을 고했다. 고객 공급원이던 운동권 문화도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신세대는 선배들만큼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는 치명상을 가했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2년 동안 대학 새내기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애초 인연의 고리가 없는 그들이 그 이후에도 녹두호프를 찾을 이유는 없었다.

“올해로 4년째 새내기 꼴을 못 봤어. 3월이면 우르르 몰려오던 학생들이 너무 그리워.” 설상가상으로 사법고시 완전 폐지와 함께 고시생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원룸촌으로 변한 그 지역은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오는 소수의 외지인이 접객했다. 고객은 빠르게 줄었고, 공치는 날은 점점 늘었다. 그러는 동안 나이를 먹은 김씨는 세상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정력은

그에게만 작용하는 듯했다. 세상은 땅에 붙박여 있던 그를 음속으로 추월했고, 김씨에게는 그 꼬리라도 부여잡을 능력과 여력이 없었다. 배달업이나, 키오스크니 하는 건 남의 이야기였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접단 문물에 익숙한 사람을 쓸 수도 없었다. 그는 빠르게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현재 그의 매출액은 월 300만~4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주류 매입비, 식재

료비, 세금 및 공과금, 대출금 이자에 허리 치료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맞는 주사 및 약값 등을 제하면 그의 손에 남는 건 잘해야 수십만원이다. 임대료(124만원)는 낼 수도 없다. 2000만원의 보증금은 이미 임대료 대신 깎여서 사라진 상태다. 국제청에서 1년에 한 번 주는 165만원의 근로장려금, 자녀들이 가끔 주는 용돈으로 겨우 임대료 펄크를 막고 있다. 27년간의 고된 노동이 그에게 남긴 건

그는 4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처음 터 잡았을 때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대구에서 현대차 딜러로 오래 일했던 그는 양말 도매업, 정수기 업체, 의료기 수입 판매업 등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이곳에 정착했다. 공부 잘하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면서다.

그는 ‘초심자의 행운’을 믿었다. 권리금 7000만원을 내고 호부침개를 창업한 데 이어 바로 이듬해 권리금 1억원을 더 내고 녹두곰창까지 인수했다. 녹두곰창은 한 때 ‘곰창계의 서울대’라는 상찬을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면서 기대에 보답하는 듯했다.

하지만 상권 쇠락 앞에 장사는 없었다. 그가 녹두곰창을 매각했을 때 받은 돈(권리금)은 2500만원에 불과했다. 호부침개 역시 매출액이 월 600만원으로 반감(半減)해 이익이 거의 없다.

“이 건물 1층이 죄다 공실인데 198만원인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인하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월세만이라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으면 좋



1 60년째 요식업에 종사 중인 권영웅씨. 2 황해도민대떡 전정숙씨와 호부침개 백선기씨가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겠어.” ‘뽕뽕이’가 그의 타들어 가는 속까지 가리진 못했다. 만약의 근원은 ‘코로나’였다. 경남 거제에서 올라와 착실히 토대를 쌓아오던 몽담밭 조현식(가명·44)씨는 코로나 압초에 걸리면서 무너져내렸다. 새

벽 장사를 하는 그에게 야간영업금지 명령은 사형 선고였다. 조씨는 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탔다. 주 3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배달원으로 일했다. 품삯이 오르는 공휴일과 주말, 비 오는 날은 단 하루도 빼

놓지 않았다. 코로나 종식만 바라며 참고 버텼다. 그러나 그렇게 버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추석 때 받은 충격은 크다. “코로나 전에는 명절 때면 손님으로 미어터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휴 기간 내내 일했는데도 예년의 절반도 안 팔렸어요. 애초에 닭발은 평소의 절반만 준비했는데도 남았어요”

그는 자칭 ‘종합병원’이다. 새벽 4시까지 일하는 ‘거꾸로 인생’ 탓에 목과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살았고 눈에 물이 차는 증상도 생겼다. 자녀가 없는 것도 고된 노동과 무관치 않다. 10년의 법적 임대 보호 기간 종료까지 임박해 내년에는 합법적으로 쫓겨날 판이다.

“마이너스예요. 0점? 아니, 마이너스!”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장사? 무조건 말리고 싶어요.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가 예비 자영업자에게 남긴 충고이자 경고다.

◆특별취재팀=박진석·조현숙
하준호·전민구 기자, 사진 김현동 기자

녹두거리 자영업자 말말말

- 월 수입 200만원 남의 식당서 일한다 해도 월 350만원 벌어**
공심 제상표
- 30년 장사하며 딱 두 번 쉬었다**
아버지·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취가로 김태수
- 벌어둔 돈 적고 연금도 너무 적어**
80세까지 일해야 노후자금 모을 듯
만족한사진관 윤갑식
- 4시간만 일해도 6만5000원 받아**
최저임금 주면 사람 못 구한다
신대성각 신현순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료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4,200) 렌트 기고 살 투자자
8003 Fallstaff Rd., McLean	RENTED	UVA 교수로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 음
825 N Wakefield Dr., Arlington, VA	\$2,700	주재원 3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2,800	One Park Crest 콘도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주소	기간	세입자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3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orough Sq, Oaktown, VA	18개월	주재원
★ 10*22 Baltusrol Ct, Oaktown, VA	3년	주재원
★ 1*36 Northern Neck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14*63 Travilah Rd, Rockville, MD	2년	교민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우리말 바꾸기

영어식 시제의 남용

다음 중 시제와 관련해 가장 적절한 문장은 어느 것일까?

㉠ 한때는 가솔도 했었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다. ㉡ 회사에 출근하고 있던 중에 동창을 만났다. ㉢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말은 원래 시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말에서 시제를 굳이 구분하자면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각각의 진행형이 있으며 드물게 ‘-있었’ 형태를 쓴다. 그러나 영어를 공부하면서 익숙해진 과거완료나 진행형이 우리말 깊숙이 파고들어 불필요한 곳에 남용되고 있다.

“한때는 가솔도 했었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다”에서 ‘했었지만’은 영어식과 거완료 표현이다. ‘한때는 가솔도 했지만’으로 해야 우리말 어법에 맞다.

“회사에 출근하고 있던 중에 동창을 만났다”처럼 ‘-하고 있던 중에’도 영어의 진행형을 지나치게 흉내 낸 표현이다. “회사에 출근하다 동창을 만났다”로 하는 게 우리말 표현 방식에 어울린다.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대체로 이런 경우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로 표현하기 십상이지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역시 영어식 진행형을 그대로 번역한 듯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공산침략에 맞선 이승만 건국대통령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한국은 20세기 기적의 나라였다.

첫째의 기적은 자유민주국가로의 건국이었다. 곧 이어진 공산침략에 호국에 성공한 것이다. 두번째의 기적은 자원빈곤과 남북대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역사상 가장 놀라운 압축성장인 조국근대화에 성공한 것이다.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시대와 대륙을 관통하는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민주정과 찬란한 유럽문화를 열었던 아테네도, 인류역사의 위대한 시대를 열었던 로마도, 한때 세계최대의 제국을 열었던 징기즈칸의 제국과 대영제국도, 흥 망성쇠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의 흥망성쇠는 민주화란 최고의 가치속에 몰역사와 반지성이 숨어있는 특이성이 있는 것이고 배덕하고 거짓말하는 국민성이 결합되었기에 치명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워야 하고 교양과 지성(양식)에 기반 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후 인류의 역사는 압제와 자유의 거대한 드라마였다. 그리스는 곧 멸망하였으나 로마제국으로 면면이 이어졌고 로마제국도 마침내 분열되고 멸망되었다. 이후 천 년의 암흑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자유민주정이 태동했다.

그리스와 로마를 잇는 새로운 장소는 유럽북부 섬나라인 영국이었다. 르네상스로 근대가 탄생했으나 무대가 된 이탈리아는 곧 쇠퇴하고 부상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충격은 영국에서 새로운 무대를 가져왔다. 엘리자베스 시대로 통하는 영국의 비상은 자연철학(과학)과 도덕철학으로 압축된다. 도덕 철학의 기풍은 사회과학을 낳았고 신사도를 창조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뒤이어 패권국이 된 영

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된다. 하지만 흥망성쇠의 운명은 영국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독일의 통일이 부른 국제정치 구도는 제국주의로 이어졌고 반세기후 유럽대륙으로 회귀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로 촉발된 1차 세계대전은 규모와 후유증 뿐 아니라 2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패권은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간다.

세계사의 변화는 은둔의 왕국 조선에도 미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하멜 일행의 표류에도 변화를 거부해온 조선은 열강의 개국강요 최후에는 교전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일본에 의해 개국된다. 하지만 부패 한 왕조는 세계와 트렌드를 거부하고 존속을 위한 고식적 행태만 지속했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승만)이 탄생한다. 그는 한학에 달통했으나 새로운 문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왕조의 개혁을 요구하다가 중형을 받고 투옥되나 그를 알아본 선교사들의 구명으로 살아남고 오랜(5년7개월) 투옥 중에 수많은 고전을 읽게 된다.

그의 옥중독서는 마침내 미국유학으로 출판으로 이어진다. 왕조는 멸망하고 일 제의 기세는 무서웠다. 그는 대학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힘든 조국독립에 헌신한다. 하와이에서 교육에 헌신하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필생의 저작 태평양전쟁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를 저술한다.

국제적 명성으로 그의 조국독립운동은 탄력

을 받게 되나 조국의 운명은 전쟁 말기의 선부른 결정에 위기에 처한다. 마침내 그의 도전은 남북분단이란 차선으로 결정되고 이후 단독정부 수립이란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된다. 일제시대부터 암약해 온 공산주의운동은 소련의 진주로 극단적인 만행과 방해로 이어진 것이다.

최빈국이자 분단국으로 건국된 한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했고 불과 2년만에 전면적 침략을 받게 이른다. 공산침략에 맞선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국난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으로 전기를 마련한다. 10년의 전쟁 복구에 과 학과 교육에 집중한 그의 헌신은 후일 조국근대화의 기반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서거는 새로운 시대와 전기와 중첩된다. 이듬해 군사혁명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20세기 경이 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전개되었고 그가 사망한 해는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이승만이었고 그는 위대한 혁신자였다. 수년 전 한국정치에 정통한 브루스 커밍스교수는 ‘태양의 민족’이란 책을 저술하고 민족의 태양이란 김일성은 북한을 지옥에 빠트렸고, 반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을 자유산업사회로 만든 헌신과 노력을 조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미래를 극히 불안하고 어렵게 보고 있다. 남북대치에도 불구하고 종북정권의 연속집권이 이루어졌고 역사 및 영웅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에게 지성과 감성, 교양과 산업, 자율과 규율(질서)와 같은 상이한 요소가 창조적으로 결합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신기루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사와 감사를 모르는 진보적 풍조와 기풍은 실은 고대 아테네를 멸망케한 중우정의 단편인 것이다. 중우정의 단편인 것이다.

독자마당

퀘벡 프랑스어와 LA 한국어

나는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퀘벡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랑스어가 현재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프랑스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연구해 본 적이 있다.

현재의 프랑스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퀘벡의 프랑스어는 영어처럼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는다. 숫자 90의 경우 현재의 프랑스어는 ‘20X4+10=90’, 즉 분해해서 읽는다. 이것이 현재 표준어다. 그러나 퀘벡에서는 바로 ‘90(Noinante)’이라고 읽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이들이 재미로 사용하던 슬랭들이 지금의 말로 고착되었고, 옛날 퀘벡에 이민 온 프랑스인 후손들이 지금도 옛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프랑스어로 공부한 사람들은 퀘벡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말할 때 ‘저 사람은 퀘벡에서 왔군’하고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이를 보면 현재 LA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도 언젠가는 퀘벡의 불어처럼 ‘LA 한국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식 표현이나 단어들을 LA에서 중

용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낱말을 알려주면서 “오늘이 8월 초야흐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8월 9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늘이 며칠이라는 거지?” 하며 고개를 가우뚱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 방송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 프랑스어와 퀘벡 프랑스어의 차이를 보는 것 같다. 세월이 더 흐르면 한국에서의 한국어와 LA에서의 한국어도 현대 프랑스어와 퀘벡 프랑스어처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박대원 LA거주·전 외교부대사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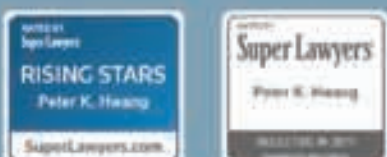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박유진
변호사

Q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

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거나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

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한청수
한의학·자연치유 박사

Q 고질병은 화침과 승강부침 치료

▶문= 화침과 승강부침 치료가 고질병에 좋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 한의학에서 많은 만성질환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임상 15년 동안 다양한 고질병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침(火鍼)과 ‘승강부침침법(昇降浮沈鍼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침은 뜨거운 열을 침에 가하여 신체

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는 한의학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통증 완화, 혈액 순환 촉진, 염증 감소, 근육 및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 관절염, 피부 질환 등 치료에 유용하며, 열을 통해 기혈 순환을 강화하여 체내의 어혈과 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강부침침법은 오장육부의 에너지 흐름, 즉 기(氣)의 상승과 하강, 부(浮)와 침(沈)을 조절하여 체내 압력을 조절하는 독창적인 침법입니다. 여기서 ‘승(昇)’은 기운을 위로 올리는 것이고, ‘강(降)’은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浮)’는 기운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침(沈)’은 기운을 내부로 깊숙이 침잠시키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장부 간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이 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최근 임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으로 눈물과 침 등의 분비가 부족해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입마름과 눈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화침과 승강부침침법을 통해 체내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오장육부의 압력을 맞춰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침 치료를 받은 후 침샘과

눈물샘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환자는 눈의 건조함과 입 마름 증상이 완화되었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화침과 승강부침침법은 전통적인 침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치료법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이 방법은 한의학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승강부침 침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사하신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꼭 시작하니 연락 기다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문=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장기 거주 하신분들에게 가입국(parole)을 제공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가능, 승인불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왕에 접

수된 신청인들에게만 기록권이 부여되고 PIP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 이민국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나요?

▶답= 네, 08/26/2024 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

서는 계속 접수되고 검토될 수 있으나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법원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답= 현재 이 프로그램은 09/04/2024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간 추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09/23/2024 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심리는 10/10/2024 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전까지는 하급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16개의 공화당 주, 주도적으로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 단체가 DHS의 “KEEL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평 4, 환 3, 2 리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 물,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AVC, 새 화워런팅크,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포, 페리온,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펠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Realty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www.koreausnpb.org



제19회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편 34:14 / 마태복음 5:9)

한미 양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2024. **10. 12** (토) 오전 7시

장소 벨엘 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Keynote Speaker

Morse H. Tan

Ambassador

Senior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Law & Government, Liberty University



주최:  **워싱턴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www.koreausnpb.org / P.O. Box 1781, Annandale, VA 22003
연락처 : jsu2000@gmail.com / Cell : (703) 844-0355

고문: 류응렬 목사 | 회장: 정승욱 | 이사장: 서옥자 | 행사준비위원장: 윤필홍

| 자문위원: 백순, 정세권, 박주용, 변헤롤드, 박상근, 최정선 | 감사: 손기성 목사 | 총무: 안조이 | 서기: 손윤희 | 회계: 김진이

| 실행위원: 김영선, 장미원, Abbott Koehler

| 협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

| 후원: 북미주 KCBMC 총연합회, 굿스폰 선교회, 워싱턴기도연합회, PRASSION, SEED International,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Triple C Wholesalers, Inc., 뽕엘교회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September 23,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미 연착륙 땀 주식, 경기침체 땀 채권... 머니 무브 'R'이 좌우

(Recession·경기침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금융·부동산 투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남아 있는 데다 금리 인하 속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과거 완만한 금리 하락기는 거의 모든 자산의 상승을 불러왔다.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가 1990년 이후 5차례 있었던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자산별 수익률(첫 금리 인하 후 26주 이후)을 분석한 결과다. 1995년과 2019년 자산별 수익률은 미국 주식(10.4%로 첫 손에 꼽혔고 뒤를 신흥국 채권(9.5%)·선진국 증시(8.1%)·미국 장기채(7.9%)·부동산(6.9%)이 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를 급격히 내렸던 시기(1990·2001·2007·2020년) 수익률은 미국 장기채(5.6%) 등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증시는 무너졌다.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동반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연준이 18일(현지시간) 단행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주곡으로 해석된다. 빅컷으로 금리 인하의 포문을 열었던 2001·2007년의 경우 빅컷 이후 2~3개월 뒤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번에는 어떨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용시장의 강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증시는 일단 '보합적 성격의 금리 인하'에 손을 들어줬다. 빅컷 당일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완만한 금리 하락기, 자산 고루 상승
금리 급격 인하 땀 안전자산 쏠림
'묻지마 채권 매수'는 주의해야

바이오주, 금리 인하 수혜주 부상
대출 규제 부동산은 영향 제한적

약세를 보였지만, 이튿날인 19일에는 강세로 돌아섰다. 에버코어의 크리스나 구하 부회장은 "특히 소형주, 경기순환주, 원자재, 원자재 통화 등 경기 사이클

에 맞춰진 위험 자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컷은 통상 경기침체 전주곡 해석 이날 금리 인하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은행주와 부동산, 산업 관련 종목 역시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에선 바이오주가 급격히 날아올랐다. 특히 삼삼바이오로직스(5.96%)·셀트리온(3.23%), 알테오젠(9.55%)은 빅컷 당일에도 강세를 보였다. 김지윤 하나는 행 PB장은 "바이오주는 유망 미래 산업이면서 신약개발에 10년 이상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표적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힌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억눌려 있던 중소형주는 물론 대표적 성장주인 대형 기술주에도 금리 인하는 단비가 될 수 있다. 빅

컷 이튿날, 엔비디아(3.97%)를 비롯해 AMD(5.7%) 브로드컴(3.9%) 등 반도체주도 오랜만에 지지개를 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은 온스당 2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UBS는 이날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가격을 내년 중반 온스당 2700달러로 제시했다. 조규원 금 투자전략가는 "코로나 직후처럼 급격한 충격이 올 경우 금값이 단기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며 장기적 금값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현정기자
▶ 2면 '머니 무브'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허름한 운동복 입고 명품 매장에... 부자의 서민 취향은 자신감의 표현

최근 미국에서는 에코백 열풍이 불었다. 뉴욕포스트는 울여름 뉴욕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두꺼운 캔버스 천으로 만든 토트백(tote bag)이란 기사를 실었다.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엘엘빈(L. L. Bean)은 이니셜이나 짧은 단어를 새겨 넣을 수 있는 토트백으로 큰 인기를 끌어 매출이 30% 급상승했다. 경쟁사 랜즈엔드(Lands' End)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쓰던 토트백 두 개를 가져오면 새 백을 1달러에 교환해주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었다. 지난 4월에는 식료품 유통업체 트레이더조(Trader Joe's)의 에코백을 구하기 위해 오픈런을 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2.99달러 천 가방의 리셀 가격은 500달러로 치솟았다.



1 토트백(에코백)을 애용하는 미국 유명 여배우들. 2 모스키노의 청소 세제 용기에 담은 고급 향수 라인. 3 미술랭 레스토랑 크라코의 포테이토칩 레시피. 4 고가 운동화 브랜드 골든구스. 낡은 신발에 테이프를 붙여 판매한다.



서민적인 문화를 더하는 실험을 벌였고, 이는 대중 시장의 트렌드로 발전하게 되었다.

젊은 층도 소비시장 주도
부유층이 일상 속에 서민적 취향을 혼합하고 드러내는 것은 계층과 지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과감한 시도에 거리낌 없는 상류층과 달리,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불안정한 중산층은 자신의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명 브랜드나 고가품을 선호한다. 하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제품을 사용하면 자신의 지위가 손실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가 명품 매장을 방문할 때 대부분은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하지만, 부유층은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도 스스럼없이 행동한다. 벨레자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는 공식 모임에 누군가 신고 온 빨간 운동화가 그 사람의 확고한 지위를 보여준다는 뜻에서 '레드 스니커즈(red sneakers) 효과'라 명명했다.

부유층과 함께 소비시장의 피라미드 정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또 다른 집단은 젊은 층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이나 용어를 기성세대가 학습하면 젊은이들은 금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거리를 유지한다. 최신 패션과 수십 년 전 유행을 뒤섞는 과감한 소비를 즐기는 젊은이도 많다. 개인화 시대에 오히려 고립감을 채우기 위한 소속 욕구가 커지고, 이는 소비를 통한 정체성 표현과 집단 구분으로 이어진다. 자아의 연장으로서 제품과 브랜드의 역할은 한국처럼 집단에 대한 애착이 높은 사회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최순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부자들의 '일상 속 서민 가방', 에코백

에코백은 2007년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안나 윈드마치가 제작한 "나는 비닐봉지가 아닙니다(I'm not a plastic bag)"가 쓰인 천 가방을 계기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천 가방은 미국에서는 캔버스 토트백으로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친환경성이 부각되어 에코백으로 통용된다. 그런데 최근 에코백 열풍은 친환경성보다는 부유층의 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확산했다. 캔버스 토트백은 2년 전 최고급 휴양지 마서즈 빈야드(Martha's Vineyard)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 귀네스 팰트로, 리즈 위더스푼이 토트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부유층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위치한 서민적인 가방이 빛을 발한 것이다.

고가 브랜드, 고급스러운 스타일에 저렴한 제품, 서민적인 취향을 접목한 부유층의 '믹스앤매치(mix and match)' 소비는 관심과 부러움의 대

상이 된다. 명품을 사랑하는 여배우로 알려진 사라 제시카 파커는 고가 의류와 매치할 중급 의류, 저렴한 액세서리를 찾아 이탈리아 베틀리지를 뒤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술랭 스타 레스토랑 크라코(Cracco)는 슈퍼에서 파는 감자 칩에 최고급 재료를 더한 레시피를 소개해 화제를 낳았다. 한국에서도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저가 화장품, 와인, 패션 아이템이 입소문을 타며 품질 사태를 빚곤 한다.

일반적으로 유행 확산은 상류층에서 만들어진 취향이 중류, 하류층의 순서로 퍼지는 트리클링 다운(trickling down)의 모습을 보인다. 상류층이 아무나 접하기 어려운 희소한 제품을 소비하며 계층을 구분하면 이를 추종하는 중산층과 또 이를 쫓는 서민층이 뒤따른다. 하위 계층이 모방하면 상위층은 더 비싸고 희소한 상품을 선택하며 우월함을 유지한다.

명품업계도 서민 취향 더한 제품 출시

하지만 트리클링 다운으로 모든 현상이 해석되진 않는다. 부유층이 사용하는 에코백, 저가 화장품 열풍은 서민적인 제품이나 문화가 상류층의 생활에 혼재되어 대중 시장으로 확산하는 '트리클링 라운드(trickling round)'로 설명된다. 청바지의 역사도 트리클링 라운드가 뒷받침한다. 원래 광부나 공장 노동자들이 입던 청바지를 상류층 여성이 입은 모습이 보그지에 실리면서 새로운 패션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트럭어 캡(trucker cap)도 트럭 운전사들이 쓰던 챙 넓은 모자를 저스틴 티브레이크 같은 스타가 애용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명품업체도 종종 저가품에서 영감을 얻거나 서민적인 취향을 더한 제품을 선보이며 반향을 일으킨다. 1달러 짜리 아케아 쇼핑백을 본떠 만든 2000달러 발레리아가 백이 대표적이다. 모스키노는 청소 세제 용기에 담은 고급

향수 라인을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가 운동화 브랜드 골든구스는 서민 패션을 적용했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때 묻고 닳은 신발을 굵은 테이프 붙여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에서 530달러에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가난을 소재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실비아 벨레자(Silvia Bellezza) 교수는 최근 두드러진 트리클링 라운드의 배경을 소비의 '신호(signal) 효과'로 설명한다. 상류층이 사용하는 희소한 고가품은 계층을 구분하는 신호 수단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고급 제품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명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점점 커졌다. 고가 명품의 계층 신호 효과가 축소되자 부유층은 자신의 위신이나 권력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신호 방식을 찾았다. 전통적인 고급문화에 저렴하고

▶1면 '머니 무브'에서 이어집니다

금값 상승세, 적립식 분할 매수할 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 역시 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4대 상승 변수는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부동산성 증가, 매수 심리를 꼽을 수 있는데 향후 수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변곡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 시행으로 당분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달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일찍부터 예고됐던 금리 인하의 영향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엔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 직후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처럼, 급격한 경기 하락이 예상

되면 주식(위험자산)에서 채권(안전자산)으로 대피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에 환호하는 증시와 달리, 원자재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이 짙다.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구리와 원유 가격은 약세를 벗어나고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 둔화에 따라 수요 부진이 예상되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둔화 등 경기

침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수혜자산인 채권·리츠 등 방어적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천했다. 홍준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미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까지 1.5% 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고된 만큼 대출 금리 하락의 수혜 대상인 미국 리츠와 장기채, 모기지 채권 등의 상승 여력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지마 채권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다. 김지민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10월 국내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되도, 속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며 "금리 인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면, 채권 금리는 반등(채권 가격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금리 인하에도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3년물 0.5bp)은 하락하고 중장기물(10년물 1.0bp)은 올랐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쉬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일출을 절로써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Little River Tnpk, Suite 330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리스크 높은 시장 적극적인 방어투자 필수

리스크 관리 위한 투자 방법

7월 말과 8월 초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크게 널뛰었다. 지난주부터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면서 증시는 반등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승장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기 조정국면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단기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 장치가 없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난 8일 트레이더들이 뉴욕 증권 거래소(NYSE)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로이터]

텍스 선택폭이 더 다양하거나 시장의 움직임이 상승이나 하락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소위 '플랫(flat)'한 시장환경일 때 하락장과 상승장 양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한다. 점일 것이다.

나름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선택옵션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적인 지수형 연금보다 운용이 탄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경우 시장이 내려가기 전에 이를 확정(lock-in)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요즘은 그런데 100% 손실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13~16% 수익이 가능한 지수형 연금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조기 해지할 계획만 아니라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RILA의 경우 10% 이상 손실 방어벽을 가져가면 오히려 수익 포텐셜이 낮을 수도 있고, 10% 손실 방어벽을 가져갈 경우 추가 수익 포텐셜이 3% 안팎이라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능동적 자산운용, 지수형 연금, 투자성 지수형 연금 등은 모두 리스크 관리형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각자의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리스크를 더 원할 경우 능동적 자산 운용이 일반적으로 적절하고,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길 원할수록 지수형 연금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투자성 지수형 연금은 양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옵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러나 일반적인 구분법이고 이들 방법이 상호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들 여러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100% 투자 리스크를 가져가는 방식부터 100% 투자 리스크를 지우는 방식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조합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리스크 관리 중요한 이유

지난 2009년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시장은 10여년 이상 상승장세를 이어왔다. 중간에 몇 차례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이 지속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은 '리스크 불감증' 현상마저 낳고 있다. 투자자들은 웬만한 수익률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 시장환경이 많은 리스크 요인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남은 투자 기간이 50~100년이라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시간이 없다.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0~40년이다. 은퇴 기간 중에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자금증식보다는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지출플랜에 방점이 찍히는 시기와 일반적인 투자 기간으로 보기 힘들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어진 기간이 매우 유한하다는 데 있다. 50% 이상 조정을 겪고 나면 이후 원금 회복만도 10여년이 걸릴 수 있다. 은퇴 기간 중 써야하는 자금이면 타격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능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바이 앤 홀드(buy and hold)'는 상승장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하락장세

2009년 금융 위기 후 10여년간 이상 시장 상승세 투자자들 '리스크 불감증'으로 수익률 만족 못 해 '바이 앤 홀드'는 상승장세 유리, 하락장세 치명적

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수익에 제한이 있다. 잠재적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손실 리스크를 수용하는 투자성 지수형 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하락장에 따른 손실을 10~40%까지 막아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익만 주는 방법이다.

현재 지수형 연금의 수익 상한선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S&P500 기준 13~16% 정도 선에서 형성돼 있다.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자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았던 지난 수년간의 시장환경의 결과물이다.

투자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가져가는 RILA의 경우는 10% 손실 방어벽(buffer)을 선택하면 S&P500 기준 16~20% 정도로 상한선이 높게 책정돼 있다. 5% 조정은 연평균 세 차례가 조금 넘고, 10% 조정은 연평균 한 차례가 조금 넘는다. 이런 일반적인 조정만 있는 시장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런 상품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인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투자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안전자산과 리스크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다.

이른바 분산투자다. 여기서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을 생각하고, 리스크자산은 주식을 생각한다. 그래서 60/40 등의 분산 포트폴리오가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산 포트폴리오도 하락장이 오면 30% 이상 빠질 수 있다. 경험상 그랬고, 앞으로는 더 큰 손실 폭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래서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도 능동적인 기술운용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전통적인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에 머물지 않고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는 적극적인 방어투자를 하는 것이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투자방법

언급한 것처럼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형 자산운용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방식도 그 안에서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하거나 공격적인 접근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이 50% 하락할 때 최고 하락 폭을 5~20% 안팎에서 막아내면서 장기적인 수익률은 시장 벤치마크를 앞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하락장을 실제 방어해본 경험이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할 때 방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지수형 연금(FIA)과 지수와 연계된 투자성 연금(RILA)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수형 연금은 하락장에 따른 손실이 없다.

반면 시장이 오를 때 받을 수 있는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보험 상식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

생명보험

“몇 년 전에 친구가 보험을 시작해서 도와주려고 하나 들어 둔 건데...”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 온 한인들의 문의 전화는 흔히 있는 일이다.

보험료를 20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오래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거나 저축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니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분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는 친척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이 보험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이들이다. 그야말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조차 듣지 않고 덜컥 사인부터 해놓은 결과다.

일단 가입해 놓은 것이니 그저 보험료만 내고

있던 차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자 ‘그때 가입해 둔 보험이 뭐더라’ 하며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디 마땅히 하소연할 때도 없다.

보험 가입을 권했던 친구나 친지는 이미 보험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내용을 따지는 것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 속앓이만 할 뿐이다. 물론 가까운 이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계약은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회사가 좋고 어떤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친척이나 학교 선�후배의 권유가 있으면 내용도 잘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미주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친척이 보험을 시작해 하나 들어줬다’라거나 ‘보험 하는 친구가 하도 권하길래 하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식의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경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주류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한인들의 경우는 친인척이거나 안면이 있는 보험 에이전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혈연과 지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인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좀 더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보험업을 시작해서 3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처음 보험을 시작한 친지나 친구에게 보험에 가입했던 많은 이들이 수년 후에 는 담당 에이전트가 없는 고아 신세가 되는 데 실

제 이런 보험계약을 ‘고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에이전트를 뽑으면 친지와 친구를 통해 처음에는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지만, 상당수가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물론 살면서 꼭 필요한 생명보험을 가입적이면 친분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플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분명한 지해다.

세법 상식



윤 주 호
CPA

암호화폐 감사

7월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지침 발표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 보고 필수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최근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선정하고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수퍼팩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선택도 주요 캐스팅보트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제도권의 승인을 받다 보니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에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세무감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세무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째,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경우, 이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스케줄C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채굴이나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암호화폐 시장가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여(gift)로 처분하는 납세자는 IRS 양식709를 보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

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 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종류의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가상화폐를 매수한

가격과 이를 매도한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원가와 기부 시점의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기부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북측, 월순수입 \$11,000</p>	<p>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p>	<p>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0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p>	<p>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p>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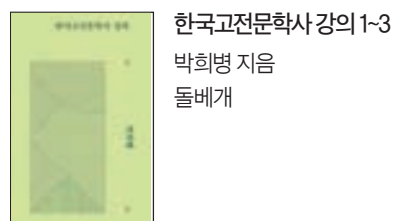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위성된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단군신화에서 조선의 실학과 살림·태교까지

‘소박한 풍요’ 말하는 지성과 문학의 기억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1-3 박희병 지음 돌베개



이달초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는 모습. 탈놀이는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제3권에 다뤄진다. [뉴스]

‘한국고전문학’이라고 하면 고교 시절 외운 작가와 작품명만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중에게는 서양이나 중국의 고전보다 덜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지은이는 자신이 40년 연구하고 가르친 한국고전문학사에 단군신화와 동명왕과 주몽의 건국신화부터 조선의 실학 글쓰기까지, 광범위하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8월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정년퇴임 전 마지막 학기 학부 강의를 녹음해 이 책으로 펴낸 이유다.

지은이는 ‘원전’과 함께 작가의 삶과 시대 상황을 가로세로로 파고들었다.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문학사에 다가가는 즐거움도 준다. 조선 후기 사대부 여성 임윤지당·남의유당·이병허각·이사주당을 보자. 임윤지당은 『중용』과 『대학』 해석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철학자로 평가된다.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性)은 애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며 자신의 학문 행위를 정당화했다. 남녀의 능력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념에 맞선 사례다.

국문으로 『규합총서』를 저술한 이병허각에 대해 지은이는 “요리와 살림을 처음으로 학문의 영역에 포섭했다”고 평가한다. 학문이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당시 동아시아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낸 사건이다. 이사주당은 태교를 다룬 『태교신기』를 저술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임신·출산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

립했다. 남의유당은 함경도 명승지를 유람하고 국문 기행문 ‘동명일기’를 남겨 사대부 집안 여성의 문밖출입을 금기시하던 시대의 모순에 맞섰다.

고종 초기 한글소설 『포의교집』의 주인공 조옥과 한글가사 ‘덴동어미화전’에 등장하는 덴동어미를 통제한 주체적 여성상을 살핀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배회하는 장사치 아내 조옥, 네 번 결혼한 덴동어미는 각각 고통을 이겨내고 자유로움을 얻는 하층여성의 주체성과 여성의 연대를 잘 보여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글쓰기를 분석하면서 알려진 인물을 다시 살펴볼 기회도 제공한다. 박지원의 문체와 삶, 그리고 사상을 상세히 분석한 뒤 그를 최치원·이규보·김시습과 더불어 “한국고전문학사의 최고 산문가”라고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지성·학식에선 김시습이, 내적 성찰력과 작가적 진정성에선 최치원이, 민족적 주체성의 자각과 애민의식과 글쓰기에 대한 열의는 이규보가 나올 수 있지만 기발하고 자유분방한 산문가라는 면에서 박지원을 능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목되는 것은 박지원이 17세부터 몇 년간 유우지질(幽憂之疾), 즉 ‘깊은 근심’의 병을 앓았다는 사실. 오늘날 법률인장으로 부르는 증상이다. 친척이 영조에게 ‘임금은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여움을 사서 귀양을 갔다 온 뒤 병을 얻어 숨지는 것을 보고 현실에 대한 환멸과 번민이 더해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마음의 병을 이겨낸 박지원은 그 뒤 백담(원각사-지금의 종로2가) 주변에 살던 이덕무·유득공 등 실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고문 추송에서 탈피해 자신의 고유한 문학관을 확립했다. 백담시사(白塔詩社)라는 이름으로 모이던 이들은 시문과 편지를 모아 ‘백담의 맑은 인연을 담은 책’이란 뜻의 책 『백담청연집』도 냈다. 박지원은 논론의 대명사로 불리며 북벌론에 투철했지만 홍대용과 교류하면서 사상의 전환을 이뤘다.

44세 때는 삼중형의 자제군관으로 연경과 열하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썼다. 자제군관은 사신이 자식이나 친척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제도. 홍대용도 자제군관으로 연경에 다녀왔다. 박지원을

담금질한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 새로운 세계와의 교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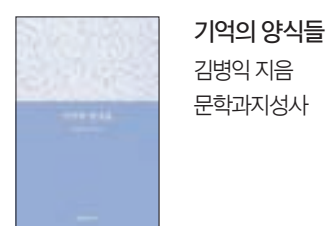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중화와 이적(夷狄·오랑캐)은 평등하며 중심과 주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중국은 물론 고려·조선에서 위력을 떨쳤던 중화주의와 화이론(세계를 중화와 오랑캐로 구분하는 것)을 전면적·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탈중화주의의 외침이다.

지은이는 ‘담연 그룹’의 중요성도 부각한다. 담연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의 호에서 한 자씩 따서 이름을 붙인 이 지식인·문인 집단은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예의 지평을 열고 배움과 지식,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여기에는 이덕무·유득공 외에 정철조·이서구·박제가 등이 포함된다.

담연 그룹은 수학·천문학·기하학 같은 자연과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많았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회통(會通·서로 다른 학문·사상·주장을 조화롭게 받아들임)이 이뤄졌다. 홍대용의 천문학 연구는 인간과 사물을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의 대전환을 불렀다. 박지원·박제가가 보여주는 합리주의적 태도는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은이의 평가다.

지은이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문학, 천주교 순교자 이순흥의 조카 이학규의 애민시와 민요에 대한 관심, 『청구야담』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야담문학 등 인물과 분야를 종합무진하며 한국고전문학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준다. 탈놀이도 다루며 민중의식의 성장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한국고전 콘텐츠에 눈독 들일 문학·영화·연극·드라마·게임 제작자가 줄이어나올 것 같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기억의 양식들 김병의 지음 문학과지성사

문학평론가이자, 1970년대 시작한 계간지·출판사 이름처럼 ‘문학’과 ‘지성’을 일컫는 저자의 글 모음이다. 평론·산문·칼럼집이 아닌 데서 짐작하듯, 발표한 지면이나 쓰게 된 계기가 다양하다. 어떤 계기든 의례적인 글에 그치는 경우는 없다. 문명과 세태에 대한 비평이 곳곳에 번득인다.

수십 년 전 글도 여럿인데, 독자로서 아무래도 현재와 공명하는 지점을 찾게 된다. 1960년대 “연대감 없는 세대교체는 역사와 전통의 단절”이라고 쓴 대목(‘문단의 세대연대론’에서)은 율초 일간지 대담을 수록한 글의 “젊은 세대에 대해 내가 기대를 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건 관용”이란 대목과 함께 보게 된다. 매국노 이완용에게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 운동 참여를 권했고 이완용이 이를 사양했다는 이야기의 진위를 궁금해 하며 시작한 2019년의 글 ‘인간 이해의 착잡함’은 같은 해의 다른 글 ‘포용과 배제’와도 겹쳐진다. 최인훈의 문학에 대한 1968년의 글은 2018년 그의 별세 직후 쓴 열거사와 나란히 실렸다. 특히 김수영·최일남·이정준·오규원 등 문학인에 대한 글은 구체적인 연이 담겨 있어 한결 흥미롭게 읽힌다. 책 말미의 ‘책, 그 질긴 인연’은 삶의 궤적을 간추린 글로도 다가온다. 저자는 이렇게 썼다. “책이란, 그리고 그 책 읽기란, ‘인생’이란 진지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존재론적 무화(無化)를 깨닫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독자→기자→편집자→저자→역자→발행인, 다시 독자로서의 귀환이라는 끈질긴 인연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만했던 것도 아니지만 공허를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 기자 시절 인터뷰를 거절당한 박경리 선생에게서 ‘작가의 품위’를 알게 된 경험, 엄혹했던 시절 이런저런 책을 출간하며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 최근의 독서법 등도 이 글에 나온다.

그는 자유 지식인, 즉 ‘특정 분야에 매달리기보다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선,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역사적 전망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이런 그가 지금 “빛나면서도 번쩍이지 않음” 품위, ‘검소한 풍요’ ‘성장 없는 발전’ ‘경쟁하는 공존’을 말하는 이유를 곱씹게 된다. 이후남 기자

책꽂이



미네르바의 울베미(제프리 에이브럼슨 지음, 김대근 옮김, 이숲)=미국 텍사스대 법행정학 교수인 저자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과 근대 정치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을 거쳐 헤겔과 마르크스까지 주요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아더랜드(토머스 할리데이 지음, 김보영 옮김, 쌤파커스)=2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의 미국 알래스카, 최초의 인간이 출현한 400만 년 전 플라이오세의 케냐, 5억 5000만년 전 에디아카라기의 호주 등 16개 지질시대의 생태계 풍경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고 세밀한 묘사와 함께 전한다. 저자는 영국의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



최소한의 중동 수업(장지향 지음, 시공사)=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을 아우르며 최근 중동의 정세와 그 역사적 맥락을 비교적 알기 쉽게 전한다. 현재 전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나 이스라엘의 직전 상황을 비롯해 최신 뉴스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푸드 한국사(주영하 지음, 휴머니스트)=위스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피자, 카레, 우유, 빵, 차, 향신료 등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역사를 담았다. 카레라이스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먹었다고 기록도 전해진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직후 일제에 붙잡혀 서울로 송환됐을 당시 경성지방병원 구내 식당에서 사운 음식이었다고 한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곳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	---	--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한경기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 49·50·51호 홈런, 50·51호 도루
담담한 오타니 “기쁨과 안도감 느껴”
50호 홈런공 주운 관객은 양도 안해

메이저리그(MLB)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는 몸 관리를 위해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선수로 유명하다. 그가 모처럼 삼페인 한 잔을 시원하게 ‘원샷’ 했다. 전인미답의 50홈런-50도루 달성과 빅리그 첫 가을야구 진출을 자축하는 자리에서였다.

오타니는 20일(한국시간)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49·50·51호 홈런을 잇달아 터트리며 50·51호 도루까지 해내면서 6타수 6안타(3홈런) 10타점 4득점 2도루로 펄펄 날았다. 전날까지 48홈런-49도루를 쌓아 올렸던 그는 이날 50-50까지 남아 있던 홈런 2개와 도루 1개를 단숨에 초과 달성했다. ‘거포’의 파워와 ‘대도’의 빠른 발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50-50은 120년이 넘는 MLB 역사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경지다.

오타니가 7회 2사 3루에서 총알 같은 시즌 50호 홈런을 때려내 대기록을 완성하자 관중은 수 분간 이어진 기립 박수로 예우를 보냈다. 오타니 역시 헬멧을 벗고 더그아웃 앞으로 나와 홈팬들과 원정 팬 모두에게 정중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저스는 마이애미를 20-4로 대파하고 1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오타니는 2018년부터 6년간 LA 에인절스에서 뛰면서 한 번도 가을야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는 올해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하면서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뛰고 싶었다”고 했고, 이적 첫해 그 소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 후 삼페인 파티에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야구 역사에서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이 나왔다. 쇼헤이! 축하해!”라고 외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일본 매체는 “평



담장·베이스 넘어 인간의 벽 넘어 오타니 ‘50-50’

(홈런·도루)

50-50 세운 날 오타니의 기록 행진

1	2	3	4
공식 기록: 6타수 6안타 3홈런 10타점 2도루 4득점	한경기 3홈런·2도루 (MLB 최초)	한경기 10타점+도루 (MLB 최초)	홈런·도루 동시 달성 13경기 (MLB 타이)

오타니가 말린스전 7회 초 메이저리그 최초 시즌 50홈런-50도루를 완성하는 50호 홈런을 날린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소 술을 먹지 않는 오타니가 유리잔에 있는 삼페인을 모두 마셨다”고 전했다. 오타니는 “삼페인 맛이 참 좋았다”며 웃은 뒤 “포스트시즌은 MLB 진출 후 계속 꿈꿔왔던 무대다. 처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50-50과 관련해선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고, 그동안 많은 기록을 만들어 온 선배 선수들을 존경하게 됐다”고 말한 뒤 “빨리 기록

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전 타석의 기억을 지우고 눈앞의 타석에만 집중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담담하게 돌아봤다.

오타니는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 입단한 뒤 ‘이도류(二刀流·투타 겸업)’ 열풍을 일으켰다.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던지면서 홈런 30개 이상을 때려내는 괴물의 등장에 일본이 들썩었다. 2018년 에

인절스에 입단한 뒤에도 투수와 타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MLB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오타니의 활약에 “야구 그 자체” “인간이 아닌 외계인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자유계약선수(FA)를 앞둔 지난 시즌에는 타자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홈런(44개)·출루율(0.412)·장타율(0.654) 아메리칸리그 1위였고,

OPS(출루율+장타율·1.066)는 MLB 전체 1위였다. 투수로도 23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를 기록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액을 받고 다저스에 새 등지를 틀었다.

지난 시즌 막판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아 투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1년간 치료와 재활을 한 오타니는 더 무시무시한 타자가 됐다. 오타니가 열어젖히는 문 하나하나가 모두 야구 역사의 신기원(新紀元)이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공식 성명을 내고 “빅리그 최초의 50-50은 오타니의 인품,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성과 노력, 헌신이 두루 반영된 결과”라고 극찬했다. 이어 “야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온 오타니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경기를 중계한 캐스터는 9회 오타니가 3연타석 홈런으로 시즌 51호포를 날린 뒤엔 “이건 현실이 아니다. 오타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감탄했다.

대기록의 희생양이 된 마이애미 벤치에도 박수가 쏟아졌다. 마이애미의 스킵 슈마커 감독은 한 타석도 불넷으로 거르지 않고 정면승부를 지시했다. 슈마커 감독은 “야구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든, 업보(karma)의 측면이든, ‘야구의 신’의 관점에서든 (오타니를 고의4구로 거르는 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선수에게는 정면 대결로 도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다. 산케이 신문은 “불가능한 목표라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을 거듭해 온 오타니의 인생 철학이 응축돼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썼다.

한편 오타니의 50호 홈런공을 주운 남성은 공을 구단에 양도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이 경매에 나올 경우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홈런공(300만5000달러, 약 40억원)보다 높은 사상 최고 가격에 팔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배영은 기자

북한, 미국 꺾고 여자월드컵 결승

(U-20)

일본과 우승 다툼

북한이 ‘우승 후보’ 미국을 꺾고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북한 여자 U-20 대표팀은 18일 콜롬비아 칼리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파스쿠알 게레로에서 열린 미국과의 대회 준결승에서 1-0으로 이겼다. 미국은 독일과 함께 이 대회 역대 최다인 3

회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다. 북한은 일본과 22일 결승전을 치른다.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북한은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일본은 같은 날 치러진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2-0으로 물리쳤다. 역대 U-20 여자 월드컵에서 1차례

우승(2018년)을 맞은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2022년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북한은 전반 22분 골잡이 최일선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최일선은 김선옥이 중원에서 찢어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미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최일선의 특징은 결승골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한 최일선은 나탈리아 벤디투(브라질), 히지카타 마야(일본·이상 5골)와 함께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피주영 기자

구독 문의: 703-281-9660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니콜 렌던
싱글홈
평4+
차고2

임대 \$56만
알링턴 콘도
평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메트로역 인접
타운하우스 콘도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가수는 취미일 뿐 뮤지컬이 내 삶 100번째 작품 제작 중”

데뷔 72년째인 78세의 가수 윤복희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그동안 쑥스러워서 안 했었다”니 기가 막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지금도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불후의 명곡 ‘여러분’의 원곡자요, 스스로 걸그룹을 결성해 1964년 영국 BBC에서 비틀즈 노래를 불러 현지 신문을 장식한 ‘최초의 한류 아이돌’이 콘서트가 쑥스럽다니.

이유가 있다. 그의 정체성은 뮤지컬에 있다. 부친 윤부길이가 만든 극단에서 5살 때부터 가무곡을 하고 70년대 최초의 상업 뮤지컬 ‘빠담빠담빠담’을 시작으로 불모지를 개척한 ‘뮤지컬 대모’가 그다. 지난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공로상을 받은 ‘레전드’지만 여전히 현역 배우다. 7년째 출연 중인 뮤지컬 ‘하모니’를 연습 중이고, 100번째 뮤지컬 ‘바울과 나’도 제작 중이다. “콘서트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뮤지컬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첫 서울 단독 콘서트”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매니저나 기획사가 없었으니까요. 칠순 때 후배 허준호가 선물로 LA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극장을 빌려서 콘서트를 제작해 줬어요. 뮤지컬 스태프들과 같이 하니까 편하고 재밌어서 국내에서도 지방부터 가끔씩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70여 년 활동을 하고 있으니, 감사카드 보내는 마음인 거죠. 5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게 익숙하지, 가수 윤복희로선 별 내세울 게 없으니 쑥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하모니’만 신경 쓰고 있어요. 7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모가 커지고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박칼린, 내 인생 다룬 뮤지컬 제작 추진
5살에 데뷔해 9살 때부터 미 8군 무대에 서다 루이 암스트롱에게 발탁되어 라스베이거스에 입성, 귀국 후엔 ‘원조 뮤지컬 디바’로 등극한 그의 삶이 한편의 뮤지컬이다 싶는데, 아니나 다를

까. 그의 삶을 다룬 뮤지컬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작년에 걸그룹 이야기인 ‘시스터즈’를 만든 박칼린씨와 몇 달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이야기만 따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전에 후배들이 하자고 했을 때는 나 죽은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널모레 80이 되고 보니 살아 있을 때 만드는 게 제작에 도움 되겠다 싶어요. 제가 부른 곡들이 다 뮤지컬에 이용될 테고, 제 삶에 스토리가 많으니까요.”

“첫 데뷔 무대도 기억나세요. “어른들 공연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아버지를 졸라 딱 한번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한창일 때라 국민들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공연에 내가 선물 역할로 나간 건데, 그게 너무나 히트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됐죠. 그 후로도 노래나 춤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저 좋아서 놀아치러 한 거죠.”

“아홉 살부터 미 8군 무대에 섰다는 게 상상상이 잘 안 갑니다.

“데뷔 5년째였고 어릴 때 더 유명했어요. 어린데 무대 서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부모님 계실 때부터 영화도 했고,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들은 소녀가장이 오빠 학비 대느라 고생한 줄 알지만, 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으니 그저 당연한 일이었어요. 돕는다는 생각도 없었죠.”

7살에 모친을, 9살에 부친을 잃었지만 ‘수양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있다. 60년대 그를 싱가포르에서 발탁해 영국을 거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국인 매니저 얘기가.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를 결성한 것도 그의 영향이다. “우연히 제 공연을 보시고 영국 갈 의향이 없냐, 생각 있으면 이 춤추는 여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40분 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라더군요. 그게 ‘코리아 키튼즈’가 됐어요. 16살 때부터 저를 돌봐준 처음이자 마지막 매니저인데, 부부가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주었어요. 뮤지컬



전쟁통이던 5살 때 아버지가 만든 가무극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대에 데뷔한 윤복희는 “내게 뮤지컬은 일이 아닌 삶”이라고 했다.

하느라 한국에 정착할 때도 기뻐해 주시고, 보러 오기도 하셨죠. 지금도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계세요.”

“BBC에서 비틀즈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니 한국어가 들리던데요.

“‘Can’t Buy Me Love’라는 곡의 첫 부분을 ‘어디에 사랑~’이라고 개사를 해서 불렀죠. 지금 보니까 우습던데, 그때 한국이란 나라를 아무도 모르니 한국인이란 걸 티 내고 싶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동양 여자들이 그런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었죠. 거기선 실력이 문제지, 한국인이라서 힘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부모도 없이 외로웠다면 외국에선 걸그룹 언니들과 함께 다니니 더 좋았죠.”

“불후의 명곡이 된 ‘여러분’ (1979)은 직접 만들었다고요.

“당시 오빠를 도와주려고 ‘유행기 작사·곡’으로 발표했지만, 내가 만든 가스펠 중 하나예요. 76년 2월 27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성령을 만난 뒤 제가 만든 곡은 다 가스펠이고 유행가는 ‘왜 돌아보요’ 딱 한 곡밖에 없어요. 뮤지컬 동료들이 내가 뽕짝 하는 걸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을 뿐, 가요는 관심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팝송과 뮤지컬만 해서 그런지 가요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가요들이 많은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음악은 취미일 뿐, 내 뉘는

뮤지컬이죠.”

“한국 뮤지컬 시장을 개척한 셈인데요. “빠담빠담빠담”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미국 활동을 해야 하나니까요. 그런데 극단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치던 하용조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선 목사님이 내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매니저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공부 삼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랐죠. 결국 그 작품을 77년부터 97년까지 했고, ‘피터 팬’은 79년부터 97년까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80년부터 2006년까지 다 원 캐스트로 했어요. 그렇게 십여 년 하다 보니 다른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더군요.”

“26년 동안 연기한 막달라 마리아에 애착이 크시겠어요.

“웬만하면 다 20년씩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 모든 역할이 소중해요. 마리아는 환갑이 넘으니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쑥스러워서요. 지금 나에겐 ‘하모니’ 밖에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고 지나간 건 잊어버리죠.”

“여러분’은 작곡 후 오빠 도우려 이름 내줘 그는 편안한 티셔츠와 레깅스 차림에 허리 색을 차고 나왔다. 미용실도 다니지 않고 의상도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데, 남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평생 하면서도 “관객 반응은 신경 써본 적 없다”

고 말하는, ‘마이웨이’ 그 자체다. -6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명동을 걸을 때 마주 오던 남자가 맨홀에 빠졌다고요.

“디자인어 노라노 선생을 만나러 가는데 명동에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 갔죠. 앞에 오는 사람이 맨홀에 빠지는데, 내가 꺼낼 수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미니스커트에 놀란 게 아니라 나를 실물로 보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뮤지컬 초창기엔 배우가 부상을 당해도 쉬지 못했다고요.

“낮 공연 때 다치면 병원에 갔다가 밤 공연을 한 시간쯤 늦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관객은 다들 기다려 주셨죠. 그런 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일이라 생각하면 힘들었겠지만, 엔터테이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걸 일이 아니라 삶이죠. 난 5살 때부터 이것밖에 몰랐고, 좋아서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 받은 삶인가요.”

그는 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어려움이라곤 모르고 살았다면서 “축복 받은 삶”이라고 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이후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온 45년이 외롭지는 않았을까. 그는 “외로울 시간이 있으면 잔다”면서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결혼과 이혼에 실수는 있었죠.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으니 내가 자존심이 컸어요. 두 번째 남편인 남진씨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살아서 잘 모르고, 첫 번째 결혼을 유지 못한 게 그분과 팬들에게 죄송할 뿐이죠.”

그는 지금도 첫 남편(가수 유주용)과 좋은 친구로 지낸다고 했다. 의논할 일이 생기면 친오빠가 아니라 첫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13살 때부터 연애를 했고, 줄곧 나를 보호자처럼 챙겨준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죠. 헤어질 때도 감정이 상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일이 있어서 헤어질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게 이성적인 만남이라면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네요.”

“100번째 뮤지컬 이후도 궁금한데요. 못 다한 꿈이 있을까요.

“여한 없이 살았어요. 두 번 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네요. 너무 스케일이 큰 삶이고,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며 살았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저 죽을 때까지 뮤지컬을 할 겁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구나, 그럴 수 밖에 없겠다. 유주현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15년 전 '페이크' 범죄 피해 솔비 "그때 합의 안 했어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가수 솔비(27·본명 권지안)와 닮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며 퍼뜨린 혐의로 김모(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 얼핏 보면 솔비로 착각할 법한 여성의 음란 동영상 '솔비'의 이름을 달고 올라왔다. 인공지능(AI)이란 말도 생소했던 때였다. 요즘 사회문제도 떠오른 딥페이크가 아닌 그냥 페이크 영상이었다. '가짜니까 별일 없겠지' 하던 사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견잡을 수 없이 퍼졌다. 충격받은 어머니는 쓰러졌고, 우울증에 빠진 솔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다. '화가 권지안'의 출발이다.

붙잡힌 범인들 "재미 삼아 그랬다"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나아플리에'에서 권지안(40)을 만났다. 그는 2020년부터 가나아플리에 상주 작가로 이곳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다.

2006년 3인조 그룹 타이퐁의 메인 보컬로 데뷔한 솔비는 2012년 첫 개인전을 열며 화가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왜 화가가 됐냐는 질문에 그가 꺼낸 이야기가 15년 전 동영상 사건이다.

문제의 음란 동영상을 사람들은 그의 동영상으로 믿어버렸다. 2년여를 시달리고서야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귓볼과 배꼽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쳤다. 마침내 잡힌 가해자들은 재미 삼아 그랬다고 했다. 감형을 위한 합의를 종용받았고, 결국 합의를 해졌다.

그 과정에서 솔비는 병들어갔다. 계속 눈물이 났다. 대인기피증에 '나 하나 없었으면 되지 않을까'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심리 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미술이 엮기에 처음부터 사물 형태 대신 속마음을 그렸다. 가장 좋았던 점은 그림엔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작업했다.

"유일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비밀친구"였던 미술은 점점 세상에 자신감 있게 자신을 꺼내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

'화가 권지안'에 대해 미술평론가 안현정은 "아카데미한 전공자들만의 영역과 그들만의 고상한 취미라는 시각을 깨는 아티테이너의 아방가르드"라



경기도 장흥 가나아플리에 작업실에서 만난 권지안(솔비).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허밍(Humming) 소리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허밍 레터' 시리즈다. 이지영 기자

고 평했다. 그만큼 그의 작업은 혁신적이다.

"사과는 그릴 줄 아니?" 악플 시달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가수 솔비와 화가 권지안의 협업 프로젝트 '엘프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다. 먼저 주제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 대형 캔버스를 설치한 뒤 그 위에서 음악에 맞춰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그리고 그 캔버스를 갖가지 크기로 잘라 사각 프레임 속에 집어

넣었다. 작품의 주제는 여성 인권과 현대인의 우울 등 그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화가 권지안'의 행보는 점점 바빠지고 있다. 2019년 대중예술인 최초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 페인팅을 펼쳤고, 2021년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서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를 받기도 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천안시립미술관과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서울 '프로세스 이태원' 등에서 전시 중이다. 이날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아트페어 '키아프서울'에도 5점이 걸렸다.

하지만 미술전공자가 아닌 이유에서 그는 악플러들의 손쉬운 타깃이 됐다. "사과는 그릴 줄 아니?"란 조롱의 댓글이 달렸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도 그는 작품으로 목소리를 낸다. 사이버 세상을 의미하는 알투미늄 소재로 사과 부조를 만들어 각 부조에 색을 입히고 알파벳을 부여해 언어 정화의 메시지를 전한 '애플 시리즈'다.

미술을 만난 뒤 그는 단단해졌다. 작업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또 어떤 좌절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15년 전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해자들과 합의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신을 갇아먹는 범죄다. 당하는 사람 심정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막막하다. 이걸 재미로 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는 사회인식 개선이 먼저다. 그때 더 강경하게 문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의 딥페이크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이지영 논설위원

그의 선율은 발레리노를 춤추게 한다

피아니스트 오은철(사진)을 알게된 건 JTBC '수퍼밴드' 때다. 전국구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모두 모인 오디션에 보기 드문 클래식 악기 연주자였지만, 오은철의 연주는 전혀 클래식하지 않았다. 건반 위에서 현대무용을 하는 듯한 자유롭고 현란한 터치는 밴드 뮤지션들의 연주에 착 감기면서도 화려함을 흠뻑 업그레이드시켰고, 메탈밴드와 팀을 꾸려 우승까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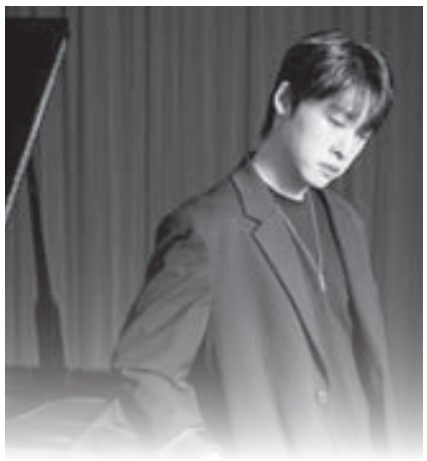
하지만 밴드 안에 머물기에 오은철의 음악은 그릇이 컸다. 지난해 솔로 음반을 냈고, 이달 그 음악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공연 '피아노 파드되'를 올렸다. '파드되'란 발레에서 2인무를 뜻하는데, 피아노가 공연의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아티스트의 창작과 2중주를 한다는 은유다. 파드되의 발레리노 김용걸 한예종 교수다.

그는 오은철의 음악을 듣자마자 '발레리노가 되고 싶었던 피아노'의 이야기로 스토리라인을 짰다. 화제의 발레리노 전민철을 비롯해 한예종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된 K-Arts Ballet가 춤으로 펼쳐 보이는데, 피아노가 시작 전부터 끝난 다음까지 객석을 뉘우지 않는 게 관전포인트다.

그는 오은철의 음악을 듣자마자 '발레리노가 되고 싶었던 피아노'의 이야

기로 스토리라인을 짰다. 화제의 발레리노 전민철을 비롯해 한예종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된 K-Arts Ballet가 춤으로 펼쳐 보이는데, 피아노가 시작 전부터 끝난 다음까지 객석을 뉘우지 않는 게 관전포인트다.

사실 오은철은 10여년 전 302만뷰를 기록한 '선화예고 점심시간' 영상의 주인공이다. 악보도 없이 피아노의 '리베르탱고'를 즉석에서 연주하는 소년들의 빛나는 재능이 마치 청춘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해 화제를 모았다. 그 영상 속에서 신들린 즉흥 피아노 연주로 혼을 쏙 빼놓은 소년이 바로 그다. "예고도 점심시간엔 남자애들이 축구 하러 다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못 나갔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니 한명씩 불은건데, 누군가 찍어서 싸이월드에도 올려 좀 핫했죠. 당시 방송 섭외도 받았는데 어머니 선에서 자르셨더라고요.(웃음)"



신들린 연주가 딱 피아노 신동 포스였지만, 그의 선택은 작곡이었다. "무궁무진하게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어서"다. "제가 중2 때 예중에 편입을 했어요. 원래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편입 때 실력이 부족하니 작곡과로 들어가서 전과를 하러 했죠. 그런데 전공생들이 하루종일 갇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행복해보이진 않았어요. 연습곡이나 표현 면에서 억압받는 느낌이랄까. 물론 한 악보를 두고 자기만의 연주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음악 자체를 무궁무진하

게 자유로운 것으로 두고 싶었거든요."

까칠한 음악가들과 달리 서글서글하게 매력이지만, 오은철은 천재가 맞다. 작곡가 데뷔도 연세대학교와 인디애나주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기도 전에 이뤄졌다. 중3때 국립경찰교향악단 위촉으로 쓴 'Voyage to the Sunrise'라는 관현악곡이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된 것이다. "선화예중은 악기별 실기 1등에게 오케스트라와 협연 기회를 주거든요. 작곡 전공은 관현악곡 쓰기가 중학생에게 버거우니까 예외였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조심스레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신이 났고, 그때 엄청 공부가 됐죠. 최근에 선화 50주년 합창곡을 위촉받아서 연습 때 갔더니 그때의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감회가 새로웠죠."

지난해 5월 발매한 첫 솔로 앨범 'Moments'는 서정적인 뉴에이지풍이다. 그런데 자유롭고 싶다고 자기 음악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다른 아티스트와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폭발적인 시너지

내는 콜라보 지향형이다. "피아노는 다른 악기나 보컬과 콜라보할 때 시너지가 큰 악기고, 저도 상대방의 잠재력과 음악성을 끄집어내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들춰내면 정말 멋있겠다,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피아노를 치면서 얻게 된 좋은 직업병이죠. 최근 엔 포레스트라 강형호 형의 공연에 세션으로 참여했는데, 기타리스트들과 호흡 맞추고 머리 흔들면서 연주할 때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어요. 형도 저한테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장르의 창작으로 이어진 '피아노 파드되' 공연은 더욱 특별하다. "늘 누군가를 위한 작업을 해왔지만, 제 음악에 누군가 영감을 받아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게 살면서 가장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은 하나였거든요. 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팡파레'처럼 내가 작곡한 거대한 스케일의 음악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른 예술가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유주현 기자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p>SOLD</p> <p>Bowie</p> <p>\$645,000</p> <p>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p> <p>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p> <p>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p> <p>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p> <p>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p> <p>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p> <p>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p> <p>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RENTED**

<p>Elkridge</p> <p>월 \$2,400</p> <p>타운홈 방3, 화3</p>	<p>Sliver Spring</p> <p>월 \$3,500</p> <p>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p> <p>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p> <p>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p> <p>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p> <p>콘도 방2, 화1</p>
---	---	--	---	--	---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회상**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아파~ 날씨 참 좋~다!

할아버지! 혹시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보신적이 있나요?

사실 나도 너희만할때 동생과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적이 있단다.

그때 갖은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을때 우리는 그토록 찾던 파랑새를 집에서 찾았지!

허허~ 너희들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파랑새를 찾아가 보구나~

그리고, 파랑새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 뭐 그런건가요?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금주의 주제 **회상**

글쎄~ 너희도 곧 알게 될거야.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이길을 꼭 따라가면 었단다!

근데, 길이 점점 이상해지네!

오빠 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란 개고생을 통해서만 알게 되지!

이 녀석들 많이 행복해 지게도련... 러러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파랑새를 꼭 찾거라!

말 이상신
국중록
화 고리타
수 병수씨
음 스키르탄
금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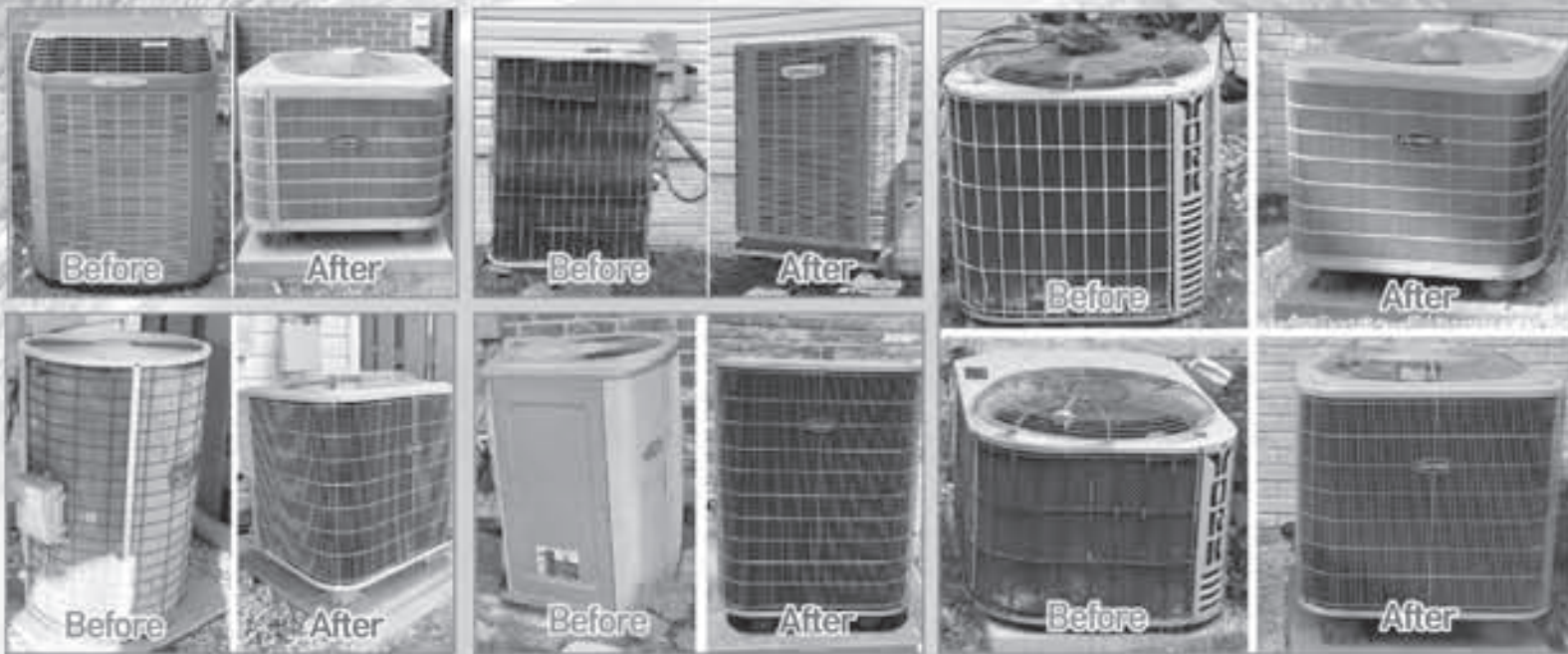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구합니다. 경력있는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무경력자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전반)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말 샵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감관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 / 현장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급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n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유/무경력자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위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위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 ▶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중앙일보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금주,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andhomehealth.com

식품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
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
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
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
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
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
영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시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
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
트,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
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
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틀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
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
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감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방청소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
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함
니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 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
여 직장인/유포/\$8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아난데일마트옆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맞춤형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회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합니다.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 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사립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3, 화2.5, 0.30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2.5, 1car 거리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워킹방 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엔지 부동산 사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페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 (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마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문,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기·예상문제/한국·타주 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행정,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시, 파워 풀 청소, 등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재제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양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 세관 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 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 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 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 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Elvis: I don't have an appointment. Can you get me in?
엘비스: 예약을 안했는데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Receptionist: No problem. Anthony is available.
접수 직원: 물론이죠. 앤소니가 손이 비네요.
Anthony: Hi, my name is Anthony. Have a seat.
앤소니: 안녕하세요. 전 앤소니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Elvis: Nice to meet you. My name is Elvis. I'm lucky to find you available.
엘비스: 반갑습니다. 저는 엘비스입니다. 마침 손이 빈

다니 제가 운이 좋네요.
Anthony: Yeah, you are. My appointment didn't show up. What would you like?
앤소니: 그러네요. 예약 손님이 안오셨거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Elvis: I'll have a trim, please.
엘비스: 다듬어 주시면 되요.
Anthony: You have a nice thick head of hair.
앤소니: 머리 솔이 아주 많아요.

Elvis: Thanks, but it's starting to turn gray.
엘비스: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가 세기 시작했어요.
Anthony: It happens to all of us sooner or later.
앤소니: 우리 모두 언젠가는 머리가 세죠.
Elvis: I'll be happy as long as I can keep it.
엘비스: 머리가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죠.

"I was sleeping when Derrick finally showed up."
(결국 데릭은 내가 자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조만간.
"The teacher is bound to find out sooner or later."
(조만간 선생님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 as long as...: ...하기만 하면.
"You can go as long as you're home for dinner."
(집에 와서 저녁만 먹는다면 가고 좋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show up: (약속한 곳에) 오다, 나타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3)털에 검은 점과 흰 점이 뒤섞여 있는 개 (5)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7)울퉁불퉁하고 몹시 시고 향기가 있는 열매 (9)삶에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짤막한 어구 (11)마을 사이로 이리저리 나 있는 좁은 길 (13)처음에 팔리는 것으로 미루어 예측하는 그날의 장사 운 (14)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16)아버지와 어머니. ~ 살아 실제 섬기기란 다 하여라/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 하리/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 (17)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18)통의 허리가 가늘고 잘록한 국악 타악기 (20)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풀무 (22)우리 몸의 틀을 유지하는 뼈. 구슬물의 열거리. ~만 겨우 세워 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24)여러 사람이 몹시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게 범석을 떠는 상태.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26)날아갈 때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공. 류현진 성공전략. 강속구 욕심 버리고 ~로 승부 (27)신선한 과일과 채소. ~ 시장

세로열쇠

(1)아주 많은 돈이나 값어치. ~을 가졌다고 한들 건강이 나쁘면 뭐하겠나? (2)물레 남의 사정을 살피고 조사함 (3)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짐을 진 사람들과 곡식 ~는 먼저 떠났다 (4)어머니의 자매 (6)태엽이 돌면서 저절로 음악이 연주되게 만든 장난감 악기. 일본 훗카기도 오타루에 있는 ~ 매장에서 사온 기념품 (8)절반이 넘는 수 (10)말인즉 옳음. 이치에 어그러지는 것이 없음. 그녀의 말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였다. □ 즉□□ (12)나무를 깎아 잉어 모양으로 만들고 속을 파내고 두드려 소리를 내는 불교 용구 (13)동쪽 바람이 말의 귀를 스쳐 감.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15)장부에 적음 (17)빨과 관자놀이 사이에 튀어나온 뼈 (19)곱셈에 쓰는 기초 공식 (21)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23)항문으로 내보내는 찌꺼기. 똥 (24)9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9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한다. 홈런이 있어 통쾌하죠 (25)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벽이 모아 놓은, 질이 좋은 꿀. 히말라야 고산지역의 ~을 먹으면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스도쿠

6		4	2		5	3		
1			7	8		2		
8					6		4	1
				2		8	9	5
		7	6					3
		5					2	
3				4			7	
			9				6	
	9	1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3	5	2	9	8	1	6	7
2	9	1	3	7	6	8	4	5
8	7	6	1	4	5	9	2	3
7	2	9	8	3	4	5	1	6
3	1	4	6	5	9	7	8	2
5	6	8	7	2	1	3	9	4
1	4	7	9	6	3	2	5	8
9	5	2	4	8	7	6	3	1
6	8	3	5	1	2	4	7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건설온돌 난방**
charooni cadet **진짜가 나타났다**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구인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세련된,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야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야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210-9720,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포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마 샵 **9월 햇살삼세일**

천공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꽃맛 생대추 따러오세요..

개장일 9월 16일 일요일 (약 2주간)

No 농약 화학비료 살충제

생대추 가격 **You Pick \$5/LB**
대추밭입장료 \$5/1명 단 10LB 이상구매시 1LB로 반환

신선농원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714-833-4988**
농장개장시간 10시~5시 [일요일도 OPEN]

건대추 11월부터 판매

신선농원
N 57 15 Darby St Highland Ave E 210 215
State St 10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제일 편리함 (State st.에서 내려서 북쪽으로 2분거리)

준비물: 운동화, 면장갑, 모자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특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특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특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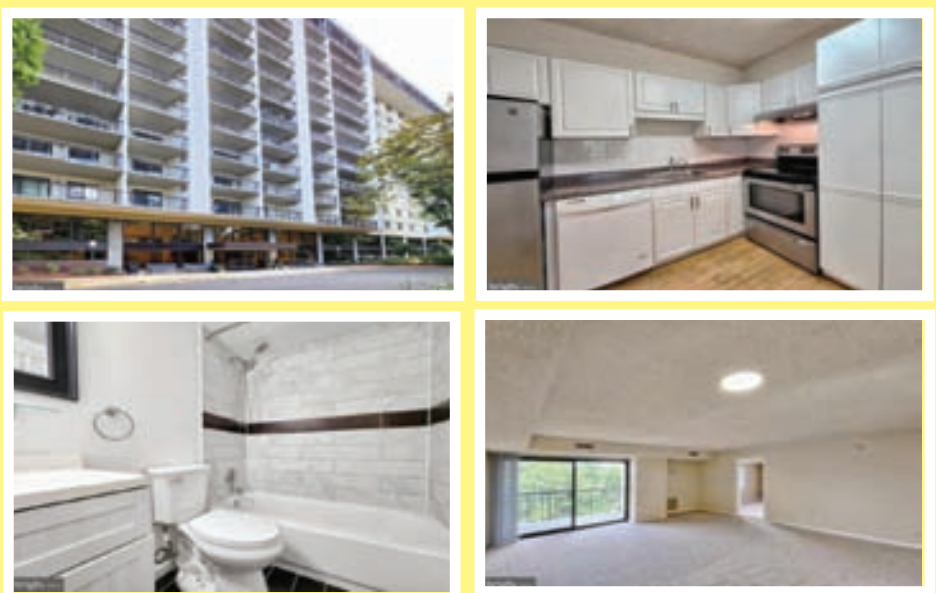
\$625,000



특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데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심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